

저자 조병후

국역 이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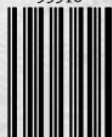
해제 오준호

국역

傷寒經驗方要撮

비매품

95510



9 788959 701650 (EPUB)
9 788959 702282 (MOBI)
9 788959 702275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서문 序	1.1
장실인(壯實人)의 상한 치료법 壯實人傷寒治法	1.2
양감상한의 치료법 兩感傷寒治法	1.3
임산부의 상한 치료법 孕婦傷寒治法	1.4
월경하는 여자의 상한 치료법 經候婦人傷寒治法	1.5
노인의 상한 치료법 老人男女傷寒治法	1.6
소아의 상한 치료법 小兒傷寒治法	1.7
상한과 비슷한 경우의 치료법 類傷寒治法	1.8
여름철 감기 치료법 暑月感冒治法	1.9
온역 치료법 瘟疫治法	1.10
상한경험방요찰발 傷寒經驗方要撮跋	1.11

해제·출판

해제	2.1
출판사항	2.2

傷寒經驗方要撮 卷之單

상한경험방요찰 단권

先考 拙軒公 傳

不肖 曹秉侯 著

선친 졸헌공(조택승曹澤承)께서 전해주시고

불초 조병후가 짓다

1.1. 序 | 서문

1.1.1. 傷寒經驗方要撮序 | 상한경험방요찰서

夫醫道之來, 傳之久矣. 神農氏嘗艸有藥, 黃帝氏著之於『經』, 使岐伯典醫, 大堯命巫咸治術, 古昔聖神, 濟衆好生之德, 盖如是至矣.

의학의 도(道)는 전해 내려온 지 오래되었다. 신농씨(神農氏)는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고, 황제씨(黃帝氏)는 『내경(內經)』에서 의학의 이치를 드러내고 기백(使岐)에게 의학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요(堯) 임금은 무함(巫咸)에게 치료를 명하였으니 옛 성신(聖神)들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생명을 아끼는 덕이 이처럼 지극하였다 하겠다.

泊于中古, 肘後青囊之妙術, 金匱石室之秘錄, 愈出愈奇, 而亦有滌臟刮骨之手術, 使殀者壽, 弱者強, 醫家之功, 顧不大歟! 但其書類頗多, 方劑浩繁, 凡醫業者, 不遑稽考. 且雖積工專業之士, 若無振領提綱¹, 則是猶望洋無涯者也.

중고(中古)에 이르러서는 안쪽 소매(肘後)와 푸른 주머니(靑囊) 속의 신묘한 의술, 금궐(金匱)과 석실(石室) 안의 비밀스런 기록들이 더욱 많이 나와 의학이 한층 발전하였다.² 또 내장을 씻고 뼈를 깎아내는 수술도 이루어져 요절할 자를 장수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니 의가(醫家)의 공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다만 그 서적이 너무 많고 처방도 매우 번다하여 의술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살펴볼 겨를조차 없다. 게다가 오랫동안 의업에만 종사하며 경험을 쌓은 의원이라도 요령을 잡지 못한다면 이것은 드넓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噫! 曹拙軒先生澤承, 涉獵百氏諸方, 深造奧妙, 而殊嫻於傷寒用藥秩序. 特舉古方順平之劑, 或隨症加減, 或臨時正變. 適於對投, 則攻表裏而見瘥, 辨內外而奏効, 百經千驗, 一無毫差. 幸使此書成編, 則可備後學之要訣, 所謂迷津寶筏, 昏路指車, 亶其在茲哉.

아! 졸헌(拙軒) 조택승(曹澤承) 선생께서는 백가의 처방들을 섭렵하여 심오한 경지로 들어가셨으며 남달리 상한(傷寒) 약을 쓰는 조리에 밝으셨다. 특히 옛 처방에서 순평(順平)한 성질의 약을 쓰셨는데 증상에 따라 가감하거나 때에 따라 정법이나 변법을 사용하였다. 투약을 할 때에는 표증과 이증을 나누어 사기를 몰아내 낫게 하고 내상과 외상을 분별하여 효과를 내었으니 백 번 천 번의 임상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다행히 이 책이 완성된다면 후학들에게 요결(要訣)로 쓰일 만하니 이른바 길 잃은 나루에서의 보배로운 뗏목(迷津寶筏³)과 혼미해진 길에서의 지남거(昏路指車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夫繼志述事, 孝子之道也. 其胤君秉侯能受心法, 且精研而慧悟, 活變而應用, 傳之兩世, 其得潤色者尤多. 故余欽慕普施博濟之功, 略述一言于卷弁.

선친의 뜻을 이어받고 사업을 잇는 것은 효자의 도리이다. 그 아들 병후(秉侯)가 선친의 심법(心法)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정밀히 연구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활발히 변용하여 적합하게 쓰게 되었으니, 두 세대 동안 전하며 잘 다듬어진 것이 더욱 많아졌다. 때문에 내가 널리 베풀고 구제하는 공을 흠모하여 책머리에 간단히 한마디 적어본다.

辛酉季夏上澣, 虎巖樵人鄭汝丞序.

신유년(1921) 6월 초순 호암초인(虎巖樵人) 정여승(鄭汝丞) 쓰다.

1.1.2. 傷寒執症法 | 상한을 가려내는 방법

凡百病이 初起에 皆惡寒、發熱、頭痛이 作하나니 內傷(氣血痰鬱虛實等症)과 外感(風寒暑濕燥火等症)을 何以分別乎아? 盖內傷은 惡寒이 有期有時하야 一日一發하며 頭痛이 有間歇하고 外感은 惡寒이 無期無時하야 一日屢發하며 頭痛이 無間歇故로 『經』에 曰 “試問頭身이 痛不痛하라. 寒熱이 無歇이면 外感明이라.” 하얏스니 由此觀之컨대 豈不分明乎아? 然則新學醫者는 凡執症에 對하야 諸症은 何如間에 以寒熱有間과 頭痛有間歇로 爲內傷症하고 以寒熱無間과 頭痛無間歇로 爲外感症이면 執症上에 萬無一失이니라.

모든 병은 초기에 오한·발열·두통이 생겨나니 내상(氣(氣)·혈(血)·담(痰)·울(鬱)·허(虛)·실(實) 등으로 인한 증세)과 외감(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 등으로 인한 증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대개 내상은 오한이 일정한 주기와 시간을 가지고 하루 한 번 발생하고 두통이 간간히 멈추며, 외감은 오한이 일정한 주기와 시간이 없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두통이 멈추지 않는다. 때문에 『내경(內經)』에서 “먼저 머리와 몸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물어보라. 오한·발열이 멈추지 않으면 외감이 분명하다.”⁵라고 하였으니, 이 말로 살펴본다면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새로 의학을 배우는 자가 상한을 가려낼 때에 증상이 어떻든 간에 오한·발열이 하루에 한 번 발생하며 두통이 멈출 때가 있는 것을 내상으로 여기고 오한·발열이 여러 번 발생하며 두통이 멈추지 않는 것을 외감으로 여긴다면 상한을 가려내는 데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을 것이다.

1. 振領提綱 : 모본에는 ‘撫領提綱’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2. **중고 발전하였다** : 화타가 남겼다는 『청낭결』 이외에 『주후방』, 『금궤요략』, 『석실비록』 등의 서적이 전해지지만, 문맥으로 볼 때 이들 서적을 직접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학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처방과 치법이 비밀스럽게 보관되었다고 여겨졌던 곳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번역하였다. ↵
3. **迷津寶筏** : 번뇌로 미혹된 중생들의 세계에서 벗어날 뗏목. 여기에서는 병에서 구원하는 뗏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책을 비유한다. ↵
4. **昏路指車** :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와 싸울 때 치우가 피운 짙은 안개로 병사들이 방향을 잃자,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지남거(指南車). 여기에서는 지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책을 비유한다. ↵
5. **먼저 분명하다** : 『의학입문』 「내집」 관형찰색문증(觀形察色問證)에 보인다. ↵

1.2. 壯實人傷寒治法 | 장실인(壯實人)의 상한 치료법

〔犯房、夢泄、勞力이 無한 男과 不經、不孕한 女을 曰壯實人也라〕

〔성행위、몽설、과로를 하지 않은 남자와 월경、임신을 하지 않은 여자를 장실인(壯實人)이라 한다.〕

1.2.1. 〔表症〕一二日된 傷寒의 初症 | 〔표증〕 1~2일 된 상한의 초기 증상

一二日된 傷寒의 初症狀은 頭痛、肢節痛、惡寒하며 或鼻塞、聲重、流涕、嘔噦하며 無汗、無咳하나니 蓋此症은 寒邪傷肺에 寒氣가 肺臟에 留連한 所致인 故로 性溫發散의 劑 香葛湯을 輕者은 一貼 重者은 二貼連服하고 溫臥發汗이면 卽解.

1~2일된 상한의 초기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 땀이 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는다. 이 증상은 한사(寒邪)가 폐를 상하게 했을 때 한기(寒氣)가 폐에 머물게 되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약성이 따뜻하고 발산시키는 약인 향갈탕(香葛湯)을 쓴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첩, 위중한 경우에는 2첩을 연이어 복용하고 따뜻한 곳에 누워 땀을 내면 곧 낫는다.

1.2.1.1. 香葛湯 | 향갈탕

〔二貼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蒼朮、柴蘇葉、白芍藥、香附子〔便製〕、升麻、乾葛、陳皮 各一錢, 川芎、白芷、甘艸 各五分. 薑 三片, 葱白 二莖.

창출, 자소엽, 백작약, 향부자(동변으로 법제한다), 승마, 건갈, 진피 각 1돈, 천궁, 백지, 감초 각 5푼, 생강 3쪽, 총백 2줄기.

尋常感冒(一名感寒)은 右傷寒의 痛症은 無하고 但鼻塞、聲重、流涕、噴嚏의 等症이 有하며 無汗、無咳하나니 此香葛湯을 亦用 可也라. 晩春의 傷寒初症 一二日 되난대는 香葛湯을 勿用하고 加味柴葛和解散(見下)을 用함이 可也라.

일반적인 감기(일명 심상감한(尋常感寒))는 앞에서 설명한 상한의 통증은 없고 다만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하는 등의 증상만 있으며 땀이 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는다. 이 증상에도 향갈탕(香葛湯)을 쓰면 좋다. 늦봄에 1~2일 된 상한의 초기 증상에는 향갈탕을 써서는 안 되고 가미시갈화해산(加味柴葛和解散)(뒤에 나온다)을 쓰는 것이 좋다.

1.2.2. 一二日된 傷風의 初症 | 1~2일 된 상풍의 초기 증상

一二日된 傷風의 初症狀도 頭痛、肢節痛、惡寒하며 或鼻塞、聲重、流涕、噴嚏하며 有汗、有咳하나니 蓋此症은 風邪傷肺에 風氣가 肺臟에 留連한 所致인 故로 性溫發散의 劑 蔘蘇飲에 人蔘을 去하고 沙蔘을 代入하며 杏仁、桑白皮 各七分五厘 或一錢을 加하여 輕者는 一貼 重者는 二貼連服하고 溫臥發汗이면 卽解.

1~2일 된 상풍(傷風)의 초기 증상도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 땀이 나고 기침을 한다. 이 증상은 풍사(風邪)가 폐를 상하게 했을 때 풍기(風氣)가 폐에 머물게 되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약성이 따뜻하고 발산시키는 약인 **삼소음(蔘蘇飲)**⁰⁶에서 인삼 대신 사삼을 넣고 행인, 상백피를 각 7푼 5리나 1돈 더하여 쓴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첩, 위중한 경우에는 2첩을 연이어 복용하고 따뜻한 곳에 누워 땀을 내면 곧 낫는다.

1.2.2.1. 加減蔘蘇飲 | 가감삼소음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沙蔘、紫蘇葉、前胡、半夏〔薑汁炒〕、乾葛、赤茯苓 各一錢, 陳皮、桔梗〔去蘆頭〕、枳殼〔麩炒〕、杏仁〔去皮尖〕、桑白皮、甘艸 各七分五厘. 薑 三片, 棗 二枚.

사삼、자소엽、전호、반하〔생강즙에 축여 볶는다〕、건갈、적복령 각 1돈,
진피、길경〔노두를 제거한다〕、지각〔밀기울에 볶는다〕、행인〔껍질과 뽕죽
한 끝을 떼 낸다〕、상백피、감초 각 7푼 5리. 생강 3쪽, 대추 2개.

尋常感冒〔一名胃風〕右傷風の 痛症이 無하고 但鼻塞、聲重、流涕、噴嚏의 等症
이 有하고 有汗、有咳하나니 此加減蔘蘇飲을 亦用 可也라.

일반적인 감기(일명 심상모풍(尋常胃風))는 앞에서 설명한 상풍의 통증은 없
고 다만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하는 등의 증상만
있으며 땀이 나고 기침을 한다. 이 증상에도 가감삼소음(加減蔘蘇飲)을 쓰면
좋다.

1.2.3. 一二日된 傷寒、傷風、尋常感寒胃風等症 | 1~2일 된 상한、상풍、심상감한 、심상모풍 등의 증상

一二日된 傷寒이나 尋常感寒이나 傷風이나 尋常胃風等の 初症에 或薑葱湯을 一
二次溫服하고 溫臥發汗이면 亦卽解.

1~2일 된 상한(傷寒)、심상감한(尋常感寒)、상풍(傷風)、심상모풍(尋常胃
風) 등의 초기 증상에는 강충탕(薑葱湯)을 1~2차례 따뜻하게 복용하고 따뜻한
곳에 누워 땀을 내어도 역시 낫는다.

1.2.3.1. 薑葱湯 | 강충탕

(二貼外에 勿用)方書所無.

(2첩 넘게 쓰지 말라) 다른 의서에는 없는 처방이다.

生薑 三錢, 葱白 一握.

생강 3돈, 총백 1줌.

右等症의 天行에 甚妙.

앞에서 설명한 증상이 유행할 때 매우 효과가 좋다.

1.2.4. 論說 | 논설

古書에 傷寒初症의 用方이 雖多하나 右香葛湯·蔘蘇飲·薑葱湯等劑보다는 發散力이 過한 故로 拙軒公계웁서 全然不取하심.

옛 책에 상한 초기 증상에 쓰는 처방이 많이 있지만 향갈탕·가감삼소음·강총탕보다 발산하는 힘이 지나치기 때문에 졸헌공께서 전혀 쓰지 않으셨다.

1.2.5. 二日半되던지 近三日된 症 | 2일 반~3일정도 된 증상

二日半되던지 近三日되던지 其中間에 溫散劑의 香葛湯·蔘蘇飲·薑葱湯等屬을 用하야 不利하면 加味柴葛和解散 一貼이나 或二貼을 溫服하고 溫臥發汗이면 卽解

2일 반에서 3일 사이에 따뜻하고 발산하는 약인 향갈탕·가감삼소음·강총탕 등을 써도 풀리지 않으면 가미시갈화해산(加味柴葛和解散) 1첩이나 2첩을 따뜻하게 복용하고 따뜻한 곳에 누워 땀을 내면 곧 낫는다.

1.2.5.1. 加味柴葛和解散 | 가미시갈화해산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 一錢五分, 黃芩、沙蔘、半夏(薑汁炒)、乾葛、白芍藥、升麻 各一錢, 羌活、防風、川芎、甘艸 各五分. 薑 三片.

시호 1돈 5푼, 황금、사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건갈、백작약、승마 각 1돈, 강활、방풍、천궁、감초 각 5푼. 생강 3쪽.

晩春의 傷寒初症 二日半되던지 近三日되는 同時에는 加味柴葛和解散을 勿用하고 加味和解散(見下)을 用함이 可也라.

늦봄에 상한의 초기 증상이 2일 반에서 3일 가까이 된 경우에는 가미시갈화해산(加味柴葛和解散)을 쓰지 말고 가미화해산(加味和解散)(뒤에 나온다)을 쓰는 것이 좋다.

1.2.6. 幾日前부터 輕感으로 忍耐한 症 | 며칠 전부터 가벼운 감기에 걸려 참고 지내온 증상

幾日前부터 輕感으로 忍耐하여 過하다가 問症의 場에 病者가 暗昧하여 昨日부터 委席하였다 誤道하면 初症으로 認定치 勿하고 卽右의 加味柴葛和解散을 用하여 欲瘥不瘥하던지 或無効하던지하면 加味和解散 三貼을 連用하면 卽解.

며칠 전부터 가벼운 감기에 걸려 참고 지내오다가 증상을 물었을 때 환자가 어리석어 어제부터 자리에 앉아 누웠다고 잘못 답하는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곧 앞에서 설명한 가미시갈화해산(加味柴葛和解散)을 쓴다. 써도 낫지 않거나 효험이 없을 때에 가미화해산(加味和解散) 3첩을 연이어 쓰면 곧 낫게 된다.

1.2.6.1. 加味和解散 | 가미화해산

(三貼用之)

(3첩을 쓴다)

柴胡 一錢五分, 黃芩、沙蔘、半夏〔薑汁炒〕各一錢, 羌活、防風、川芎、甘艸 各五分. 薑 三片.

시호 1돈 5푼, 황금、사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각 1돈, 강활、방풍、천궁、감초 각 5푼, 생강 3쪽.

脇痛이 有하면 加枳殼、桔梗 各七分.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각、길경 각 7푼을 더한다.

咳嗽면 加杏仁、桔梗 各七分.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 각 7푼을 더한다.

1.2.7. 論說 | 논설

已上の 論한 바는 皆 初症의 治法이요 症名은 表症이라 하나니라.

이상 논한 것은 모두 초기 증상의 치료법이며 증상의 명칭은 표증(表症)이라고 한다.

1.2.8. (半表半裏症) 三四日 되면 寒變爲熱症 | (반표반리증) 3~4일 되어 한이 열로 변한 증상

三四日 되면 肺臟에 留連한 寒氣가 變하여 熱이 되는 故로 其症이 頭痛、肢節痛、惡寒뿐만아니라 發熱、煩渴의 症이 兼發하나니 萬一 此時에 醫者가 傷寒治法에 不慣하야 溫散劑되는 香葛湯이나 蔘蘇飲이나 其他九味羌活湯·葛根解肌湯·香蘇散·敗毒散·十神湯等劑을 誤用하면 邪熱이 愈熾하야 胃經津液이 煎熬鑠盡한즉 扁鵲이 雖在傍이나 十常八九로 難救하나니 可不懼哉아! 然則 清熱로 爲主하야야 其症을 完治하나니 清熱主材되는 加減清熱和解散 三四貼을 連服하고 發汗은 大禁止함이 可也.

상한이 3~4일 되면 폐에 머물던 한기가 변하여 열이 된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열과 번갈의 증상이 함께 생긴다. 만일 이 때 의원이 상한 치료법에 익숙하지 않아 따뜻하게 하고 발산시키는 약인 향갈탕(香葛湯)이나 가감삼소음(加減蔘蘇飲) 이외에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향소산(香蘇散)·패독산(敗毒散)·십신탕(十神湯) 등의 약을 잘못 쓰면 사열(邪熱)이 더욱 치성(熾盛)해져서 위경(胃經)의 진액이 졸아붙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편작이 곁에 있더라도 십중 팔구는 살려내기 어려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청열(淸熱)을 위주로 하야야 그 병을 완치할 수 있으니 청열하는 약재를 위주로 하는 가감청열화해산(加減淸熱和解散) 3~4첩을 연이어 복용하되 땀은 절대 내지 말아야 한다.

1.2.8.1. 加減淸熱和解散 | 가감청열화해산

(三四貼用之)

(3~4첩을 쓴다)

柴胡 一錢五分, 黃芩、沙蔘、天花粉、生地黃、白芍藥、麥門冬(去心) 各一錢, 羌活、防風、川芎、甘艸 各五分. 薑 三片

시호 1돈 5푼, 황금、사삼、천화분、생지황、백작약、맥문동〔심을 뺀다〕 각 1돈, 강활、방풍、천궁、감초 각 5푼. 생강 3쪽.

渴症이면 加知母 七分.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모 7푼을 더한다.

咳嗽면 加杏仁、桔梗 各七分 或一錢.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 각 7푼이나 1돈을 더한다.

脇痛이면 加枳殼、桔梗 各七分.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각、길경 각 7푼을 더한다.

腹痛이면 白芍藥을 一錢五分으로 入함.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백작약을 1돈 5푼 넣는다.

渴症이 無하거나 渴症이 大端치 아니하거나 하면 本方中에 半夏를 恒常不去하고 用함이 可하고 若渴症이 甚하면 半夏를 去之 可也라.

갈증이 없거나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방 중의 반하를 빼지 않고 항상 쓰는 것이 좋고, 갈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하를 빼는 것이 좋다.

1.2.9. 論說 | 논설

已上の 論한 바는 半表半裏症也라.

이상 논한 것은 반표반리증이다.

1.2.10. 〔裏症〕 四五日되면 無惡寒但發熱症 | 〔이증〕 4~5일 되어 오한은 없고 발열만 있는 증상

四五日되면 惡寒은 無하고 熱氣만 發하며 頭痛이 甚하며 腹痛이 有하며 渴症이 有하며 嘔逆이 有하나니 加味柴茹湯 二貼이나 或三貼까지 連服이면 卽止.

상한이 4~5일 되면 오한은 없고 열만 나며 두통이 심하고 복통이 있으며 갈증이 있고 구역질이 나니 가미시여탕(加味柴茹湯) 2첩이나 3첩을 연이어 복용하면 곧 증상이 멎는다.

1.2.10.1. 加味柴茹湯 | 가미시여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柴胡 一錢五分, 半夏(薑汁炒)、白芍藥、赤茯苓、沙蔘、黃芩(薑汁炒)、麥門冬(去心) 各一錢, 天花粉、陳皮、黃連(薑汁炒)、生地黃、甘艸 各五分, 竹茹 一團, 烏梅 一個. 薑 五片.

시호 1돈 5푼,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백작약、적복령、사삼、황금(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맥문동(심을 뺀다) 각 1돈, 천화분、진피、황련(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생지황、감초 각 5푼, 죽여 1몽치, 오매 1개. 생강 5쪽.

調薑汁一匙服.

생강즙 1술을 타서 복용한다.

渴症이 甚이면 天花粉을 倍入하며 知母 七分을 加하고

갈증이 심한 경우에는 천화분을 2배로 넣고 지모 7푼을 더하고

胃脇이 痛이면 加枳殼、桔梗 各七分.

가슴과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각、길경 각 7푼을 더한다.

咳嗽면 加杏仁、桔梗、桑白皮 各五分.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상백피 각 5푼을 더한다.

1.2.11. 五六日되면 熱氣太甚症 | 5~6일 되어 열이 극심한 증상

五六日되면 熱氣가 太甚하고 心胃이 煩滿하고 渴症이 甚하고 大便이 燥結이면 六一順氣湯 一二貼을 連用하여 大便이 通하여 瀉가 되면 諸症이 頓減이니라.

상한이 5~6일 되면 열이 매우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갈증이 심하고 대변이 딱딱하게 뭉친다. 육일순기탕(六一順氣湯) 1~2첩을 연이어 써서 대변이 통하여 설사를 하게 되면 모든 증상이 금세 경감된다.

1.2.11.1. 六一順氣湯 | 육일순기탕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大黃 二錢, 枳實〔麩炒〕、厚朴〔薑汁炒〕、芒硝、柴胡、黃芩、白芍藥、甘艸 各一錢. 薑 三片.

대황 2돈, 지실(밀기울에 볶는다)、후박(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망초、시호、황금、백작약、감초 각 1돈. 생강 3쪽.

芒硝는 諸藥의 煎後에 入하여 乍煎溫服.

망초는 모든 약재를 달인 후에 넣는데 살짝 더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1.2.12. 五六日、六七日되야 大熱、大煩의 症 | 5~7일 되어 열이 심하고 몹시 답답한 증상

五六日이나 六七日이나 되어 大熱、大煩、大滿、大渴、不大便、譫語、發狂、舌胎의 等症이 有한 者는 大柴胡湯이나 大承氣湯이나 間에 一貼을 卽用하고 大便秘通하면 更勿用하고 若大便秘不通하면 一貼을 又用하야 大便秘通瀉되면 諸症이 卽解.

상한이 5~6일이나 6~7일이 되어 열이 심하고 몹시 답답하며 배가 매우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며 발광하고 설태가 끼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이나 대승기탕(大承氣湯) 1첩을 쓴다. 대변이 통하게 되면 이 약을 또 써서는 안 되며 대변이 나오지 않으면 1첩을 다시 써서 대변이 통하여 설사를 하게 되면 모든 증상이 곧 낫는다.

1.2.12.1. 大柴胡湯 | 대시호탕

〔一二貼外에 勿用〕

〔1~2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 四錢, 黃芩、白芍藥 各二錢五分, 大黃 二錢, 枳實〔麤炒〕 一錢五分, 半夏〔薑汁炒〕 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시호 4돈, 황금、백작약 각 2돈 5푼, 대황 2돈, 지실〔밀기울에 볶는다〕 1돈 5푼,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1돈. 생강 3쪽, 대추 2개.

凡右症에 先用大柴胡湯하야 若不効면 方可用大承氣湯하라. 大柴胡湯은 藥性이 輕하고 大承氣湯은 藥性이 峻한 故니라.

앞에서 설명한 증상에는 먼저 대시호탕을 써보고 효험이 없을 때 비로소 대승기탕을 써야한다. 대시호탕은 약성이 가볍고 대승기탕은 약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1.2.12.2. 大承氣湯 | 대승기탕

(一貼或加一貼外에 勿用)

(1첩(혹 1첩을 더 쓰는 경우도 있다) 넘게 쓰지 말라)

大黃 四錢, 厚朴〔薑汁炒〕、枳實〔麩炒〕、芒硝 各二錢.

대황 4돈, 후박〔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지실〔밀기울에 볶는다〕、망초 각 2돈.

芒硝는 諸藥의 煎後에 入하여 乍煎溫服.

망초는 모든 약재를 달인 후에 넣어서 살짝 더 달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1.2.13. 論說 | 논설

已上の 論한 바는 裏症也라.

이상 논한 것은 이증이다.

1.2.14. 總論要旨 | 총론 및 요지

右尋常感寒과 尋常冒風과 表症과 半表半裏症과 裏症의 輕重緩急을 總論하노니
盖所崇가 輕한즉 緩하야 日數가 雖多하나 表症이 尙存하나니 表症藥을 用할 것이
요 重한즉 急하야 日數가 雖小하나 裏症이 尙見하나니 裏症藥(五日이 되어야 瀉할
藥을 方用함)을 用함이 可할지요 膠柱鼓瑟로 日數期限만 株守치 勿할지니 醫者는
此總論을 注意함이 可也라.

앞에서 설명한 심상감한(尋常感寒)、심상감풍(尋常冒風)、표증(表證)、반표 반리증(半表半裏症)、이증(裏證)의 경증과 완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대개 병사(病邪)가 가벼우면 느리게 진행되므로 앓은 날이 오래되어도 표증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표증약을 써야하고 병사(病邪)가 위중하면 빠르게 진행되므로 앓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이증이 나타나니 이증약(5일이 되어야만 설사시키는 약을 쓸 수 있다)을 쓰는 것이 옳다. 융통성 없이 날짜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니 의원은 이 총론의 내용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1.2.15. 〔雜症〕 舌胎症 | 〔잡증〕 설태증

舌胎(白胎也라)症은 心經火甚也니 黃連解毒湯 二三貼을 用之 可也라.

설태(백태이다)는 심경(心經)의 화(火)가 심한 것이니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 2~3첩을 쓰는 것이 좋다.

1.2.15.1. 黃連解毒湯 | 황련해독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黃連、黃芩、黃柏、梔子〔生〕 各一錢二分五厘

황련、황금、황백、치자〔생것을 쓴다〕 각 1돈 2푼 5리.

1.2.16. 譫語撮空症 |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이 혼미한 증상

譫語、神昏、叉手冒心、撮空、循衣、摸床⁷의 等症은 盖肝熱이 乘肺에 元氣虛弱하야 主持을 不能한 所致이니 陶氏升陽散火湯 二貼이나 三貼이나 連用하면 卽止.

헛소리를 하고 정신이 혼미하며 손을 교차하여 가슴을 감싸고 허공을 휘저으며 옷을 매만지고 침상을 더듬는 증상들은 간열(肝熱)이 폐에 올라탔는데 원기가 허약해져 이를 버티지 못하여 생긴 것이다. 도씨승양산화탕(陶氏升陽散火湯) 2첩이나 3첩을 연이어 쓰면 곧 그친다.

1.2.16.1. 陶氏升陽散火湯 | 도씨승양산화탕

(二三貼外에 勿用)

(2~3첩 넘게 쓰지 말라)

人蔘、當歸、白芍藥、柴胡、黃芩、白朮、麥門冬(去心)、陳皮、白茯苓、甘艸各一錢, 金箔 二枚(半煎時에 入하여 更煎). 薑 三片, 棗 二枚.

인삼、당귀、백작약、시호、황금、백출、맥문동(심을 뺀다)、진피、백복신、감초 각 1돈, 금박 2장(반쯤 달였을 때 넣고 다시 달인다). 생강 3쪽, 대추 2개.

1.2.17. 結胸症 | 결흉증

表症이 在時五日前에 早히 下利劑(泄瀉할 藥)을 用하면 胃煩滿(쑹쑹한症)과 胃痛이 作하는 것을 結胃이라하나니 柴陷湯(見「胃門」) 二貼을 連用하면 卽止오 若未効면 小陷胃湯을 用之하라.

표증이 5일 되기 전에 성급하게 하리제(下利劑)(설사시키는 약이다)를 썼을 때 가슴에 번만(煩滿)(답답한 증세이다)과 통증이 생기는 것을 결흉(結胃)이라고 한다. 시함탕(柴陷湯)(「**홍문**」에 **나온다**⁸) 2첩을 연이어 쓰면 곧 그친다. 만약 효험이 없으면 소함흉탕(小陷胃湯)을 쓴다.

1.2.17.1. 柴陷湯 | 시함탕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半夏(薑汁炒) 三錢, 瓜婁仁(去殼)·柴胡 各二錢, 黃芩·黃連 各一錢, 人蔘 七分, 甘艸 五分. 薑 五片, 棗 二枚.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3돈, 과루인(껍질을 벗긴다)·시호 각 2돈, 황금·황련 각 1돈, 인삼 7푼, 감초 5푼. 생강 5쪽, 대추 2개.

1.2.17.2. 小陷胃湯 | 소함흉탕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半夏(薑汁炒) 五錢, 黃連 二錢五分, 瓜婁實(大者) 四分之一.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5돈, 황련 2돈 5푼, 과루실(큰 것을 쓴다) 4분의 1쪽.

水二盞으로 先煎瓜婁實하야 至半에 乃入半夏·黃連하야 煎至半에 去滓하야 溫服호되 若未利여던 再服하야 黃涎을 利下면 便安이니라.

먼저 물 2잔으로 과루실을 달이다가 물이 절반이 되면 반하·황련을 넣고 다시 물이 절반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만약 설사를 하지 않으면 재차 복용하여 누런 침 같은 것을 설사하면 곧 편안해진다.

1.2.18. 支結症 | 지결증

未經下(泄瀉할 藥을 不用時)의 外感에 痰熱이 盛하여 胃痞(沓沓症)、脇痛하며 身熱煩渴하난 것은 結胃症이 非也오 乃支結症也라. 傷寒의 例有症也니 柴梗半夏湯(見「胃門」)二三貼을 用之하면 卽瘥.

하법(下法)을 쓰지 않은 경우(설사시키는 약을 쓰지 않은 경우)의 외감에 담열(痰熱)이 성하여 가슴이 막히고(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다) 옆구리가 아프며 몸에 열이 나고 번갈아 있는 것은 결흉증(結胃症)이 아니라 지결증(支結症)이다. 상한에 흔히 있는 증상이니 시경반하탕(柴梗半夏湯)(「흉문(胸門)」에 보인다) 2~3첩을 쓰면 곧 낫는다.

1.2.18.1. 柴梗半夏湯 | 시경반하탕

(二三貼外에 勿用)

(2~3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 二錢, 瓜婁仁(去殼)、半夏(薑汁炒)、黃芩、枳殼(麩炒)、桔梗(去蘆頭) 各一錢, 青皮、杏仁(去皮尖) 各八分, 甘艸 四分. 薑 三片.

시호 2돈, 과루인(껍질을 벗긴다)、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황금、지각(밀기울에 볶는다)、길경(노두를 제거한다) 각 1돈, 청피、행인(껍질과 뽕죽한 끝을 떼 낸다) 각 8푼, 감초 4푼. 생강 3쪽.

渴症이 有하면 加天花粉、知母、生地黃 各一錢.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천화분、지모、생지황 각 1돈을 더한다.

嘔逆이 有하면 加竹茹 一團, 烏梅 二個.

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죽여 1몽치, 오매 2개를 더한다.

咳喘이 有하면 加麥門冬、貝母 各八分.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쁜 경우에는 맥문동·패모 각 8푼을 더한다.

1.2.19. 陽症自利症 | 양증의 설사

自利(泄瀉也라)、身熱、煩渴、脉數이면 此는 陽症也니 柴芩湯에 去人蔘、桂心하고 加沙蔘 六分 黃連 三分하야 二三貼을 用之 可也라(盖陽症泄瀉는 許多).

자리(설사이다)가 있고 몸에 열이 나며 번갈이 있고 맥이 삭(數)하면 이는 양증(陽症)이다. **시령탕(柴芩湯)**⁹에 인삼·계심을 빼고 사삼 6푼, 황련 3푼을 더하여 2~3첩을 쓰는 것이 좋다(대개 양증에는 설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1.2.19.1. 加減柴芩湯 | 가감시령탕

(二三貼外에 勿用)

(2~3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 一錢六分, 澤瀉 一錢三分, 白朮、猪苓、赤茯苓 各七分五厘, 半夏〔薑汁炒〕七分, 黃芩、沙蔘、甘艸 各六分, 黃連 三分, 薑 三片.

시호 1돈 6푼, 택사 1돈 3푼, 백출·저령·적복령 각 7푼 5리,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7푼, 황금·사삼·감초 각 6푼, 황련 3푼, 생강 3쪽.

渴症이 有하면 加天花粉、知母 各一錢.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천화분·지모 각 1돈을 더한다.

嘔逆이 有하면 加竹茹 一團, 烏梅 二個.

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죽여 1몽치, 오매 2개를 더한다.

咳嗽가 有하면 加杏仁、桔梗、貝母 各七分.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패모 각 7푼을 더한다.

1.2.20. 陰症自利症 | 음증의 설사

又自利〔泄瀉也라〕、身凉、不煩渴、嘔逆、咳嗽、脉沉이면 此는 陰症也니 理中湯 一二貼을 用之 可也라〔盖陰症泄瀉는 稀少〕.

자리(설사이다)가 있고 몸이 차며 번갈이 없고 구역질 하며 기침 하고 맥이 침(沉)하면 이는 음증(陰症)이다. 이중탕(理中湯) 1~2첩을 쓰는 것이 좋다(대개 음증에는 설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1.2.20.1. 理中湯 | 이중탕

〔一二貼外에 勿用〕

〔1~2첩 넘게 쓰지 말라〕

人蔘、白朮、乾薑〔炮〕二錢, 甘艸 一錢.

인삼、백출、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 각 2돈, 감초 1돈.

1.2.21. 吐蛔症 | 회충을 토하는 증상

吐蛔는 胃經이 寒하야 蛔가 不安이니 雖有大熱이나 凉藥을 大忌니 安蛔理中湯 一貼이나 或二貼을 急用하야 蛔가 安하거던 小柴胡湯을 繼用하야 其熱을 退하라.

회충을 토하는 것은 위경(胃經)이 차가워 회충이 편안해 하지 않기 때문이니 열이 심하더라도 절대 서늘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안회이중탕(安蛔理中湯) 1~2첩을 급히 써서 회충이 편안해지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이어서 써서 그 열을 물리쳐야 한다.

1.2.21.1. 安蛔理中湯 | 안회이중탕

(一貼用之)

(1첩을 쓴다)

白朮、白茯苓、各一錢, 人蔘 七分, 乾薑(炒黑) 五分, 烏梅 二個, 花椒(去目) 三分.

백출、백복령 각 1돈, 인삼 7푼, 건강(검게 볶는다) 5푼, 오매 2개, 화초(눈을 떼 낸다) 3푼.

1.2.21.2. 小柴胡湯 | 소시호탕

(一貼外에 勿用)

(1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 三錢, 黃芩 二錢, 沙蔘、半夏(薑汁炒) 各一錢, 甘艸 五分, 薑 三片. 棗 二枚.

시호 3돈, 황금 2돈, 사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각 1돈, 감초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1.2.22. 壞症 | 괴증

壞症은 十二日以上至十四五日토록 不愈함을 謂하난 症名이니 蔘胡芍藥湯 二三貼을 用之 可也 若或元氣가 大脫하야 精神이 昏沉而垂死之境이 되거던 急히 獨蔘湯을 用하라.

괴증(壞症)은 12~15일이 되도록 낫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삼호작약탕(蔘胡芍藥湯) 2~3첩을 쓰는 것이 좋다. 혹 원기가 크게 손상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급히 독삼탕(獨蔘湯)을 써야한다.

1.2.22.1. 삼호작약탕 | 蔘胡芍藥湯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生地黄 一錢五分, 人蔘、柴胡、白芍藥、黃芩、知母、麥門冬〔去心〕各一錢, 枳殼〔麩炒〕八分, 甘艸 三分. 薑 三片.

생지황 1돈 5푼, 인삼、시호、백작약、황금、지모、맥문동〔심을 뺀다〕 각 1돈, 지각〔밀기울에 볶는다〕 8푼, 감초 3푼. 생강 3쪽.

1.2.22.2. 독蔘湯 | 독삼탕

〔一二次用之〕

〔1~2차례 쓴다〕

人蔘 一兩.

인삼 1냥.

煎하여 冷水에 沉服.

달여서 찬물에 타서 복용한다.

1.2.23. 勞復再痛症 | 노복으로 재발하여 아픈 증상

勞復再痛의 症은 其病이 如初症也니 新瘥하여 氣血이 虛에 梳洗을 太早하거나 動作을 太過히하여 成하나니 益氣養神湯 二貼을 用之 可也라.

노복으로 재발하여 아픈 것은 마치 상한의 초기 증상 같다. 병이 갓 나아 아직 기혈이 허할 때에 너무 일찍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과도하게 움직여서 생긴 것이다. 익기양신탕(益氣養神湯) 2첩을 쓰는 것이 좋다.

1.2.23.1. 益氣養神湯 | 익기양신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人蔘、當歸、白芍藥〔酒炒〕、麥門冬〔去心〕、知母、梔子〔炒〕各一錢, 白茯苓、前胡 各七分, 陳皮 五分, 升麻、甘艸 各三分. 棗 二枚.

인삼、당귀、백작약〔술에 축여 볶는다〕、맥문동〔심을 뺀다〕、지모、치자〔볶는다〕 각 1돈, 백복신、전호 각 7푼, 진피 5푼, 승마、감초 각 3푼. 대추 2개.

1.2.24. 食復再痛症 | 식복으로 재발하여 아픈 증상

食復再痛도 其病이 如初症也니 新瘥하야 脾胃虛弱에 飲食을 恣過하면 消化不能하야 成하나니 小柴胡六君子湯 二貼을 用之 可也라.

식복으로 재발하여 아픈 것도 마치 상한의 초기 증상 같다. 병이 갓 나아 비위가 허약할 때에 내키는 대로 음식을 많이 먹어 소화시킬 수 없게 되어 생긴 것이다. 소시호육군자탕(小柴胡六君子湯) 2첩을 쓰는 것이 좋다.

1.2.24.1. 小柴胡六君子湯 | 소시호육군자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柴胡 二錢, 黃芩、陳皮 各一錢五分, 半夏(薑汁炒)、白茯苓、白朮、枳殼(麩炒) 各一錢, 人蔘 八分, 甘艸 三分, 薑 三片.

시호 2돈, 황금·진피 각 1돈 5푼,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백복령·백출·지각(밀기울에 볶는다) 각 1돈, 인삼 8푼, 감초 3푼, 생강 3쪽.

頭痛이 有하면 加川芎 一錢.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천궁 1돈을 더한다.

渴症이 有하면 加乾葛 一錢.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갈 1돈을 더한다.

食後服.

식후에 복용한다.

1.2.25. 陰陽易 | 음양역

陰陽易은 女病이 新瘥에 男이 與之交接하여 反得病함을 曰陰易이라하고 男病이 新瘥에 女가 與之交接하여 反得病함을 曰陽易이라하나니 蓋其病毒이 換易과 如함이라. 其症狀은 頭重、身熱、衝胃、眼火、陰腫、手足攣、小腹(붓두던배)腰痛하고 重者는 舌吐數寸하고 脉離經死(百日內勿犯房)하나니 急히 燒棍散을 用하며 爪甲散을 用하며 又是 竹皮逍遙散을 用之 可也라.

음양역(陰陽易)은 2가지가 있으니 여자가 병이 갓 나아서 남자가 그녀와 성교하여 병을 얻은 것을 음역(陰易)이라 하고 남자가 병이 갓 나아서 여자가 그와 성교하여 병을 얻은 것을 양역(陽易)이라고 한다. 그 병독(病毒)이 서로 바뀌는 것이 이러하다. 그 증상은 머리가 무거우며 몸에 열이 있고 가슴으로 치받으며 눈에 불이 이는 듯 하고 성기가 부으며 손발에 경련이 일고 아랫배(붓두던 배)와 허리가 아픈 것이다.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혀를 몇 치 늘어뜨리고 맥

이 경맥을 떠나 죽게 되니(이러한 경우에는 100일 동안 성관계를 금해야 한다) 급히 소곤산(燒棍散)과 조갑산(爪甲散)을 쓰거나 죽피소요산(竹皮逍遙散)을 쓰는 것이 좋다.

1.2.25.1. 燒棍散 | 소곤산

(一日三次用之)

(하루 3차례 쓴다)

棍襠

잠방이

一片을 陰近處의 方圓者四五寸을 取하여 燒存性하여 一錢重式을 一日三次 溫水에 調服이면 小便이 卽利하고 陰頭가 微腫하여 卽愈이니 男女互用之하라.

음부 근처 부위에 해당하는 잠방이 1조각을 사방 4~5치 정도 잘라서 약성이 남게 태운 후 1돈씩 하루 3차례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하면, 곧 소변이 잘 나오고 음경 끝이 약간 부었다가 곧 낫는다. 남녀를 바꾸어서 쓴다.

1.2.25.2. 爪甲散 | 조갑산

(一日三次用之)

(하루 3차례 쓴다)

人之手足指爪甲.

사람의 손발톱.

二十片을 取하여 燒灰爲末하여 米飲에 調下면 其効가 同上이라.

손발톱 20조각을 태워 가루 낸 뒤 미음에 타서 먹으면 그 효과가 소곤산과 같다.

1.2.25.3. 竹皮逍遙散 | 족피소요산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靑竹皮(卽王竹皮也)、生地黃、人蔘、知母、黃連、滑石、韭白、柴胡、犀角、甘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청족피(왕죽피이다)、생지황、인삼、지모、황련、활석、부추흰뿌리、시호、서각、감초 각 1돈, 생강 3쪽, 대추 2개.

臨服時에 裊襪燒存性末 一錢五分重을 調服하고 微取汗호되 若未汗이어던 再服하라.

복용할 때 잠방이(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 낸다) 1돈 5푼을 타서 복용하고 땀을 조금 낸다. 땀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복용한다.

1.2.26. 喘促症 | 숨이 가쁜 증상

喘促症은 柴芩의 冷劑와 峻攻之藥을 多用之餘에 元氣虛脫則肺經의 虛熱이 旺盛한 所致이니 加味生脉散 一二貼을 試用하야 無害하거던 五味子湯 一二貼을 用之可也라.

숨이 가쁜 증세는 시호나 황금 같이 차가운 약과 강하게 공격하는 약을 많이 쓴 나머지 원기가 허해져서 폐경(肺經)의 허열이 왕성하여 생긴다. 시험 삼아 가미생맥산(加味生脉散) 1~2첩을 써보고 해가 없으면 오미자탕(五味子湯) 1~2첩을 쓰는 것이 좋다.

1.2.26.1. 加味生脉散 | 가미생맥산

(一二貼用之)

(1~2첩을 쓴다)

麥門冬〔去心〕、五味子、人蔘、白茯苓、杏仁〔去皮尖〕各一錢, 陳皮、貝母〔薑汁炒〕各七分, 甘艸 五分. 薑 三片, 棗 二枚.

맥문동〔심을 뺀다〕, 오미자, 인삼, 백복령, 행인〔껍질과 뽀족한 끝을 떼 낸다〕 각 1돈, 진피, 패모〔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각 7푼, 감초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1.2.26.2. 五味子湯 | 오미자탕

(一二貼用)

(1~2첩을 쓴다)

五味子三錢, 人蔘、麥門冬〔去心〕、杏仁〔去皮尖〕、陳皮 各二錢. 薑 五片, 棗 二枚.

오미자 3돈, 인삼, 맥문동〔심을 뺀다〕, 행인〔껍질과 뽀족한 끝을 떼 낸다〕, 진피 각 2돈, 생강 5푼, 대추 2개.

1.2.27. 瘥後昏沉症 | 상한이 나은 후에 정신이 혼미한 증상

瘥後昏沉症은 或旬이나 或二旬의 餘에 寒熱、頭身痛의 雜症은 別無하고 但神昏、語錯、目赤、舌乾호되 不飲水하고 與粥則嚥하고 不與粥則不思하며 形貌如醉 하나니 此는 熱이 心經에 傳하는 所致이니 陶氏導赤各半湯을 用之 可也라.

상한이 나은 후에 정신이 혼미한 증세는 나은 지 10일이나 20여일이 지나 오히려 발열이나 머리와 몸이 아픈 증상은 특별히 없고 다만 정신이 혼미하고 말에 조리가 서지 않으며 눈이 벌겍게 되고 혀가 마르지만 물을 마시려 하지 않으며 죽을 먹이면 먹지만 죽을 주지 않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마치 술에 취한 모습 같은 것이다. 이는 열이 심경(心經)에 전해졌기 때문이니 도씨도적각반탕(陶氏導赤各半湯)을 쓰는 것이 좋다.

1.2.27.1. 陶氏導赤各半湯 | 도씨도적각반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黃芩、黃連、梔子(炒)、知母、麥門冬(去心)、白茯苓、犀角、人蔘、滑石 各一錢, 甘艸 五分, 燈心 一團, 薑 一片, 棗 二枚.

황금 황련 치자(볶는다) 지모 맥문동(심을 뺀다) 백복신 서각 인삼 활석 각 1돈, 감초 5푼, 등심 1몽치. 생강 1쪽, 대추 2개.

臨服時에 生地黃汁 三匙를 調服.

복용할 때 생지황즙 3술을 타서 먹는다.

1.2.28. 瘥後熱不退虛煩症 | 상한이 나은 후에 열이 물러나지 않아 허번하는 증상

瘥後에 熱不退하야 虛煩의 等症에는 辰砂五苓散을 用之 可也라

상한이 나은 후에 열이 물러나지 않아 허번(虛煩)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사오령산(辰砂五苓散)을 쓰는 것이 좋다.

1.2.28.1. 辰砂五苓散 | 진사오령산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澤瀉、赤茯苓、猪苓、白朮 各二錢五分, 官桂、辰砂 各五分.

택사、적복령、저령、백출 각 2돈 5푼, 관계、진사 각 5푼.

右爲末하여 每二錢重을 沸湯에 調服.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2돈씩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1.2.29. 瘥後虛煩不得眠症 | 상한이 나은 후 허번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증상

瘥後虛煩不得眠의 症에는 酸棗仁湯을 用之 可也라.

상한이 나은 후 허번(虛煩)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증상에는 산조인탕(酸棗仁湯)을 쓰는 것이 좋다.

1.2.29.1. 酸棗仁湯 | 산조인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酸棗仁〔炒〕二錢, 麥門冬〔去心〕、知母 各一錢五分, 白茯苓、川芎 各一錢, 乾薑〔炮〕、甘艸〔炙〕 各二分五厘.

산조인〔볶는다〕 2돈, 맥문동〔심을 뺀다〕、지모 각 1돈 5푼, 백복령、천궁 각 1돈,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감초〔굽는다〕 각 2푼 5리.

1.2.30. 最後總括論 | 최후총괄론

已上 壯實人傷寒最後의 總括論이라. 大凡傷寒用藥을 自初至終하여 已上陳述한 바에 依하여 順序을 勿失하고 加減하여 用藥하면 其病은 當時에 設或輕快의 効가 無하나 死症을 犯한 外에는 决코 死亡의 患이 無하나니 今此初學醫諸君은 自信不疑할지며 瘥後에 調理用藥法은 表症瘥後나 半表半裏症瘥後나 裏症瘥後나 凡於瘥後에는 勿論 生脉補益湯을 虛實斟酌하여 多小服用함이 至可至可也라. 盖補中益氣湯은 凡病後나 勞役傷에 脾胃을 調理하고 元氣를 增進케 함이 羣方의 元帥요 補劑의 神聖이니 此外에 更無勝此方으로 思惟할지어다.

이상은 장실인(壯實人)의 상한에 대한 마지막 총론이다. 무릇 상한에 약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순서를 잃지 않고서 가감하여 약을 쓴다면 당장 빠른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사증(死症)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죽을 염려는 없을 것이니 지금 처음 의학을 배우는 사람은 믿고 의심치 말라. 병이 나은 후에 몸조리를 위해 약을 쓰는 방법은 표증·반표반리증·이증에 상관없이 나은 후에 허실을 짐작하여 생맥보익탕(生脉補益湯)의 분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 보중익기탕은 병을 앓고 난 후나 노역상(勞役傷)에 비위(脾胃)를 조리하고 원기를 복돋아주는 효능이 처방들 가운데 으뜸이며 보약 가운데 성약(聖藥)이다. 이외에 더 좋은 처방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1.2.30.1. 生脉補益湯 | 생맥보익탕

(即補中益氣湯 本方に 合生脉散이 是也라)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본방에 생맥산(生脉散)을 합한 것이다)

黃芪〔蜜炒〕一錢五分, 人蔘、白朮、麥門冬〔去心〕、五味子、甘艸 各一錢, 當歸〔身〕、陳皮 各五分, 升麻、柴胡 各三分.

향기(꿀을 발라서 볶는다) 1돈 5푼, 인삼 백출 맥문동(심을 뺀다) 오미자 감초 각 1돈, 당귀신 진피 각 5푼, 승마 시호 각 3푼.

脾胃虛冷이면 炙甘艸로 代入하고 升麻、柴胡을 并蜜炒入用이 可也오 但久服이나 多服이나 하려면 升麻、柴胡를 并蜜炒用之하고 甘艸은 本方대로 生入함.

비위가 허랭(虛冷)하면 감초 대신 구운 감초를 넣고 승마、시호는 모두 꿀을 발라서 볶은 것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오랫동안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야할 경우에는 승마、시호 모두 꿀을 발라서 볶은 것을 쓰고 감초는 본방대로 생것을 넣는다.

6. **삼소음(參蘇飲)**: “參蘇飲. 治感傷風寒, 頭痛, 發熱, 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 潮熱. 人參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 各一錢, 陳皮 桔梗 枳殼 甘草 各七分半.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易簡』삼소음. 풍한에 상하여 두통.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안으로 칠정에 상하여 가래가 많고 가슴이 그득하며 조열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 자소엽 전호 반하 각근 적복령 각 1돈, 진피 길경 지각 감초 각 7푼 5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이간』”『동의보감』「잡병편」한(寒). ↩

7. **摸床**: 모본에는 ‘模床’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8. 「**홍문**」에 **나온다**: 본서에는 「홍문」이 없다. 『동의보감』 혹은 『제중신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뒤의 원문주석도 이와 같다. ↩

9. **시령탕(柴苓湯)**: “柴苓湯. 治傷寒熱病, 發熱泄瀉. 柴胡一錢六分, 澤瀉一錢三分, 白朮 猪苓 赤茯苓 各七分半, 半夏七分, 黃芩 人參 甘草 各六分, 桂心三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水煎溫服.『丹心』시령탕. 상한열병으로 열이 나고 설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시호 1돈 6푼, 택사 1돈 3푼, 백출 저령 적복령 각 7푼 반, 반하 7푼, 황금 인삼 감초 각 6푼, 계심 3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을 넣어 물에 달여 따듯할 때 먹는다.『단심』”『동의보감』「잡병편」한(寒). ↩

1.3. 兩感傷寒治法 | 양감상한의 치료법

〔犯房이나 夢泄이나 後에 外感風寒者曰 兩感이라하나니 蓋此病이 人生上에 十居八九의 症이오 古書에曰 兩感은 必死之症이라하나니 可不懼哉아? 庸醫는 治療不能하는 病이니 慎之慎之할지라〕

〔성관계나 夢설을 한 후에 밖으로 풍한(風寒)에 감촉된 것을 양감(兩感)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병은 사람이 살면서 십중팔구 겪게 되는 병증이며 옛 책에 “양감은 반드시 죽게 되는 병증이다.”라고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렬한 의원은 잘 치료할 수 없으니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

1.3.1. 一二日된 初症 | 1~2일 된 초기 증상

一二日된 初症의 症狀은 惡寒、頭痛、肢節痛 或腰痛不痛하나니 陶氏補中益氣湯 二貼을 連服하고 微發汗이면 卽解.

양감상한이 1~2일 된 초기 증상은 오한이 있고 머리가 아프며 사지 관절이 아픈데 경우에 따라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도씨보중익기탕(陶氏補中益氣湯) 2첩을 연이어 복용하고 땀을 조금 내면 곧 낫는다.

1.3.1.1. 陶氏補中益氣湯 | 도씨보중익기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人蔘、生地黃、黃芪〔生〕、當歸、川芎、柴胡、陳皮、羌活、白朮、防風 各七分, 細辛、甘艸 各五分. 薑 三片, 棗 二枚, 葱白 二莖.

인삼, 생지황, 황기〔생것을 쓴다〕, 당귀, 천궁, 시호, 진피, 강활, 백출, 방풍 각 7푼, 세신, 감초 각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

元氣不足이면 加升麻三分.

원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마 3푼을 더한다.

1.3.2. 素虛人症 | 평소 허한 사람의 증상

素虛의 人은 外感症은 小하고 內傷症은 多하나니 一二日間에 補中益氣湯(「內傷門」見)에 去升麻하고 加川芎、羌活、防風 各五分하야 二貼을 連服하고 微發汗이면 卽解.

평소 허한 사람은 외감증을 적게 끼고 내상증이 많으니 1~2일 사이에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내상문(內傷門)」에 보인다)에 승마를 빼고 천궁、강활、방풍 각 5푼을 더하여 2첩을 연이어 복용하고 조금 땀을 내면 곧 낫는다.

1.3.2.1. 加減補中益氣湯 | 가감보중익기탕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黃芪(蜜炒) 一錢五分, 人蔘、白朮、甘艸 各一錢, 當歸(身)、陳皮、川芎、羌活、防風 各五分, 柴胡 三分. 薑三片, 棗二枚, 葱白二莖.

황기(꿀을 발라서 볶는다) 1돈 5푼, 인삼、백출、감초 각 1돈, 당귀신、진피、천궁、강활、방풍 각 5푼, 시호 3푼.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

1.3.3. 素來腎虛人症 | 평소 신허가 있는 사람의 증상

素來腎虛症이 有한 人은 外感藥發散의 劑를 妄用치 못하나니 腎氣湯(「五臟門」見)에 川芎、羌活、防風 各五分, 薑五片, 棗二枚, 葱白二莖을 加入하야 二貼을 熱服하야 微發汗이면 卽解.

평소에 신허증(腎虛症)이 있던 사람에게는 발산 시키는 외감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니 신기탕(腎氣湯)(「오장문(五臟門)」에 보인다)에 천궁·강활·방풍 각 5푼, 생강 5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를 더하여 2첩을 뜨겁게 해서 복용하고 땀을 조금 내면 곧 낫는다.

1.3.3.1. 加味腎氣湯 | 가미신기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熟芩 三錢, 山藥、山茱萸 各一錢五分, 白茯苓、澤瀉〔素有夢泄者去之〕、牡丹皮、五味子 各一錢, 川芎、羌活、防風 各五分. 薑 五片, 棗 二枚, 葱白 二莖.

숙지황 3돈, 산약·산수유 각 1돈 5푼, 백복령·택사〔평소에 몽설이 있던 사람은 뺀다〕·목단피·오미자 각 1돈, 천궁·강활·방풍 각 5푼. 생강 5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

1.3.4. 內傷症多者の 一二日된 症 | 내상증이 많은 사람의 1~2일 된 증상

內傷症(血氣虛者·犯房多者·勞力多者)이 多者는 一二日間に 雙和湯(「虛勞門」見)에 羌活、防風 各五分 生薑은 五片으로 入하여 二貼을 連服하여 微發汗이면 卽解.

내상증(기혈이 허한 경우, 과도하게 성행위를 한 경우, 과로한 경우)이 많은 사람은 1~2일 사이에 쌍화탕(雙和湯)(「허로문(虛勞門)」에 보인다)에 강활·방풍 각 5푼, 생강 5쪽을 넣어서 2첩을 연이어 복용하고 땀을 조금 내면 곧 낫는다.

1.3.4.1. 羌防雙和湯 | 강방쌍화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白芍藥 二錢五分, 熟地黃、當歸、川芎、黃芪(蜜炒) 各一錢, 桂皮、甘艸 各七分五厘, 羌活、防風 各五分. 薑 五片, 棗 二枚.

백작약 2돈 5푼, 숙지황 당귀 천궁 황기(꿀을 발라서 볶는다) 각 1돈, 계피 감초 각 7푼 5리, 강활 방풍 각 5푼. 생강 5쪽, 대추 2개.

1.3.5. 三四五日된 症 | 내상증이 많은 사람의 3~5일 된 증상

三四五日이 되어 漸次發熱이 甚하며 煩渴이 生하며 頭痛이 如破하는 同時에는 八仙長壽湯에 生地黃、白芍藥、柴胡、黃芩 各一錢을 加入하여 二三貼을 連用 可也라

내상증이 많은 사람이 3~5일 되어 점차 열이 심하게 나며 번갈아 생기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것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팔선장수탕(八仙長壽湯)에 생지황, 백작약, 시호, 황금 각 1돈을 더하여 2~3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3.5.1. 加味八仙長壽湯 | 가미팔선장수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熟芩 三錢, 山藥、山茱萸 各一錢五分, 白茯苓、澤瀉、牡丹皮、麥門冬(去心)、五味子、生地黃、白芍藥、柴胡、黃芩 各一錢

숙지황 3돈, 산약, 산수유 각 1돈 5푼, 백복령, 택사, 목단피, 맥문동(심을 뺀다), 오미자, 생지황, 백작약, 시호, 황금 각 1돈.

1.3.6. 六七八日된 症 | 내상증이 많은 사람의 6~8일 된 증상

六七八일이 되도록 已上과 如히 加味八仙長壽湯 等劑을 連用하여도 小無瘥効하고 漸至危篤하여 大熱、大煩、大渴、大滿、發狂、譫語 等症이 發하면 此는 虛熱이 大熾한 所致이니 生脉大補湯 二三貼을 連用 可也라.

내상증이 많은 사람이 6~8일이 되도록 이상과 같이 가미팔선장수탕(加味八仙長壽湯) 등의 약을 연이어 써도 전혀 효과가 없고 점점 위독해져 열이 심하고 몹시 답답하며 갈증이 심하고 배가 아주 더부룩하며 발광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허열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생맥대보탕(生脉大補湯) 2~3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3.6.1. 生脉大補湯 | 생맥대보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黃芪(蜜炒)、肉桂(去麤皮)、熟芩、白芍藥、川芎、當歸、人蔘、白朮、白茯苓、甘艸、麥門冬(去心)、五味子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황기(꿀을 발라서 볶는다)、육계(거친 껍질을 벗긴다)、숙지황、백작약、천궁、당귀、인삼、백출、백복령、감초、맥문동(심을 뺀다)、오미자 각 1돈. 생강 3쪽, 대추 2개.

若有利無害하며 欲効未効하거던 附子童便劑一錢을 加入함.

만약 약효는 유지하고 부작용을 없애거나 약을 썼는데도 효험이 없어 효험을 얻고자 한다면 부자(동변에 법제한다) 1돈을 더 넣는다.

1.3.7. 〔別驗〕犯房、夢泄의 日數稍遠한 症 |〔특별한 치험〕성행위나 몽설을 한 지 조금 오래된 경우

已上과 如히 次第를 不違하고 用藥하야도 終是不瘥하면 此는 何故인가? 盖病人이 素是年少強健하거나 犯房이나 夢泄이나 日數가 稍遠하야 六七日七八日되거나 壯實人이 單獨一次犯房이나 夢泄을 하거나 하면 此는 氣血은 不大虛하고 邪氣는 甚히 旺盛한 所以라. 一向尙補면 竟至狼狽이니 先祛邪後行補라야 其病이 完瘥하니 和解散에 加減하야 一貼이나 或二貼이나 見機暫用하야 邪熱을 斥退後에 隨即 加味八仙長壽湯(見上)에 去柴芩하고 加入 蔘 一錢用之하거나 生脉大補湯 或 附子大補湯(并見上) 二三貼을 連用 可也라.

이상과 같이 하여 순서를 어기지 않고 약을 써도 끝내 낫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환자가 본래 나이가 젊고 튼튼하거나 성행위나 몽설을 한 지 조금 오래되어 6~7 혹은 7~8일 되거나 장실인(壯實人)이 한 차례만 성행위나 몽설을 하면 기혈이 크게 허하지 않고 사기(邪氣)는 심히 왕성하니 이 때문에 낫지 않는 것이다. 한결같이 보하기만 하면 마침내 낭패를 볼 것이니 먼저 사기를 없앤 후에 보해주어야만 그 병이 완전히 낫는다. 화해산(和解散)에 가감하여 1첩이나 2첩을 적절한 시기에 잠시 써서 사열(邪熱)을 물리친 후 이어서 가미팔선장수탕(加味八仙長壽湯)(앞에 나왔다)에 시호와 황금을 빼고 인삼 1돈을 더하여 쓰거나 생맥대보탕(生脉大補湯) 혹은 부자대보탕(附子大補湯)(모두 앞에 나왔다) 2~3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3.7.1. 和解散 | 화해산

〔一二貼外에 切勿用〕

〔1~2첩 넘게 절대로 쓰지 말라〕

柴胡 一錢五分, 黃芩、沙蔘、半夏〔薑汁炒〕各一錢, 甘艸 五分. 薑 三片.

시호 1돈 5푼, 황금、사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각 1돈, 감초 5푼.
생강 3쪽.

頭身痛이甚하면 加用川芎、羌活、防風 各五分.

머리와 몸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천궁、강활、방풍 각 5푼을 더한다.

煩熱이有하면 加生地黃、麥門冬、白芍藥 各一錢.

번열(煩熱)이 있는 경우에는 생지황、맥문동、백작약 각 1돈을 더한다.

渴症이有하면 去半夏, 加天花粉 一錢, 知母 七分.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하를 빼고 천화분 1돈, 지모 7푼을 더한다.

咳嗽가有하면 加杏仁、桔梗 各七分.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 각 7푼을 더한다.

脇痛이有하면 加枳殼、桔梗 各七分.

옆구리가 아픈 경우에는 지각、길경 각 7푼을 더한다.

腹痛이有하면 加白芍藥 一錢.

배가 아픈 경우에는 백작약 1돈을 더한다.

嘔逆이有하면 加竹茹 一團, 烏梅 二個, 調薑汁服.

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죽여 1몽치, 오매 2개를 더하고 생강즙을 섞어서 복용한다.

1.3.8. 諸般補藥을 用之無效한 症 | 온갖 보하는 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 증상

諸般補藥을 用하야도 不効하고 頭身痛、煩渴、發熱、腹痛、嘔逆 等症이 有하거든 加味柴茹湯(「壯實入門」見) 一貼이나 或二貼을 見機暫用하고 行補의 節次는 特別經驗論末과 如히 用藥 可也라.

온갖 보하는 약을 써도 효험이 없고 머리와 몸이 아프고 번갈·발열·복통·구역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미시여탕(加味柴茹湯)(「장실인의 상한 치료법」에 나온다) 1~2첩을 적절한 시기에 잠시 쓴다. 보(補)하는 절차는 앞의 특별한 경험(特別經驗) 끝부분과 같이 약을 쓰는 것이 좋다.

1.3.8.1. 加味柴茹湯 | 가미시여탕

(一二貼外에 切勿用. 見上)

(1~2첩 넘게 절대 쓰지 말라. 앞에 나왔다)

已上과 如히 用藥하야도 嘔逆症이 不止하면 八物湯에 加陳皮 一錢하야 用之則 神効하니라.

이상과 같이 약을 써도 구역질이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팔물탕(八物湯)에 진피 1돈을 더하여 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3.8.2. 陳皮八物湯 | 진피팔물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川芎、當歸、熟芩、白芍藥、人蔘、白朮、白茯苓、陳皮、甘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천궁、당귀、숙지황、백작약、인삼、백출、백복령、진피、감초 각 1돈. 생강 3쪽, 대추 2개.

1.4. 孕婦傷寒治法 | 임산부의 상한 치료법

1.4.1. 一二日된 初症 | 1~2일 된 초기 증상

一二日된 傷寒의 初症狀은 頭痛、肢節痛、惡寒、咳嗽하며 或鼻塞、聲重、流涕、噴嚏하나니 芎蘇散 一貼或二貼을 煎服後 溫臥禁風하고 取汗은 大忌.

1~2일 된 상한의 초기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고 기침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궁소산(芎蘇散) 1첩이나 2첩을 달여서 복용한 후 따뜻한 곳에 누워 바람을 피한다. 땀을 내는 것은 절대 금한다.

1.4.1.1. 芎蘇散 | 궁소산

(二貼用之)

(2첩을 쓴다)

黃芩、前胡、麥門冬〔去心〕各一錢, 川芎、陳皮、白芍藥、白朮 各八分, 柴蘇葉 六分, 乾葛 五分, 甘艸 三分. 薑 五片, 葱白 二莖.

황금、전호、맥문동〔심을 뺀다〕 각 1돈, 천궁、진피、백작약、백출 각 8푼, 자소엽 6푼, 건갈 5푼, 감초 3푼. 생강 5쪽, 총백 2줄기.

1.4.2. 近三日되거나 幾日前된 症 | 상한이 3일 가까이 되거나 며칠 되지 않은 증상

近三日되거나 幾日前이 되거나 하면 壯實人傷寒의 幾日前대문에 用藥法을 依하여 加味和解散에 去半夏하여 二貼을 連用 可也라.

상한이 3일 가까이 되거나 며칠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며칠 전부터 가벼운 감기에 걸려 참고 지내온 증상’부분의 약 쓰는 방법에 따라 가미화해산(加味和解散)에 반하를 빼고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4.2.1. 加味和解散 | 가미화해산

(「壯實人」 幾日前 대문에 見)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며칠 전부터 가벼운 감기에 걸려 참고 지내온 증상’ 부분에 나온다)

1.4.3. 三四日된 症 | 3~4일 된 증상

三四日 되면 肺臟에 留連한 寒氣가 變하여 熱이 되는 故로 其症이 頭痛、肢節痛、惡寒뿐만 아니라 發熱、煩渴의 症이 兼發하나니 清熱로 爲主하여야 其症을 完治하나니 壯實人傷寒의 三四日 대문에 用藥法을 依하여 加減清熱和解散 二貼을 連用 可也라.

상한이 3~4일이 되면 폐장(肺臟)에 머무르는 한기가 변하여 열이 되므로 그 증상이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열·번갈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열을 내리는 것을 위주로 해야 완치할 수 있다.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3~4일 되어 한이 열로 변한 증상’부분의 치료법을 따라 가감 청열화해산(加減清熱和解散)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4.3.1. 加減清熱和解散 | 가감청열화해산

(「壯實人」 三四日대문에 見)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3~4일 되어 한이 열로 변한 증상’ 부분에 나온다)

1.4.4. 四五日된 症 | 4~5일 된 증상

四五日 되야 嘔逆、腹痛의 等症이 有하면 壯實人傷寒의 四五日대문에 用藥法을 依하여 加味柴茹湯에 去半夏하야 二貼을 連用 可也라.

상한이 4~5일 되어 구역질·복통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4~5일 되어 오한은 없고 발열만 있는 증상’ 부분의 치료법을 따라 가미시여탕(加味柴茹湯)에서 반하를 빼고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4.4.1. 加味柴茹湯 | 가미시여탕

(「壯實人」四五日대문에 見)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4~5일 되어 오한은 없고 발열만 있는 증상’ 부분에 보인다)

1.4.5. 五六七八日된 症 | 5~8일 된 증상

五六七八日이 되도록 已上和 如히 次第로 用藥하야도 小無瘥効하고 大熱、大煩、大滿、大渴、不大便、譫語、發狂、舌胎의 等症이 有하면 孕婦는 汗藥、吐藥、下藥의 等劑를 不敢用之하고 但히 和解、清熱、安胎로 爲主하나니 涼血黃龍湯 二三貼을 連用則神効하나니라.

상한이 5~8일이 되도록 이상과 같이 하여 차례대로 약을 썼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고 열이 심하고 몹시 답답하며 배가 아주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며 발광하고 설태(舌胎)가 끼는 증상이 있다면 임산부에게는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는 약 등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오직 화해시키고 열을 내리며 태를 안정시키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니 양혈황룡탕(涼血黃龍湯) 2~3첩을 연이어 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4.5.1. 凉血黃龍湯 | 양혈황룡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柴胡 三錢, 黃芩 二錢, 生地黃、赤芍藥、川芎、當歸 各一錢二分五厘, 沙蔘 一錢, 甘艸 五分, 薑 三片, 棗 二枚.

시호 3돈, 황금 2돈, 생지황·적작약·천궁·당귀 각 1돈 2푼 5리, 사삼 1돈, 감초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已上八症이 無하드라도 五六日間에 勿論用之하면 特効.

이상 8가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상한이 5~6일 된 경우에 쓰면 무조건 특효가 있다.

1.4.6. 孕婦禁忌藥論說 | 임산부의 금기약에 대한 논설

大凡孕婦의 用藥은 傷寒이나 雜病이나 間에 安胎로 爲主할뿐만아니라 又是 落胎 禁忌藥을 常常考察하야 犯禁의 材料는 拔之不用할지니 妊娠禁忌藥을 左開하노라.

모든 임산부에게 약을 쓸 때는 상한이든 잡병이든 간에 태를 편안히 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또, 낙태시킬 수 있는 금기 약재를 항상 잘 살펴보고 금기에 해당하는 약재는 빼버리고 쓰지 말아야 한다. 임신에 금기할 약재를 아래에 나열한다.

1.4.7. 妊娠禁忌藥 | 임산부의 금기약

(五十二種)

(52종이다)

芫青 班猫 水蛭 虻蟲 烏頭 附子 天雄 野葛 水銀 巴豆 牛膝 薏苡仁 蜈蚣 三陵 代赭
芫花 麝香 大戟 蛇脫 石雄黃 石雌黃 芒硝 牡丹皮 桂槐花 牽牛 皂角 半夏 南星 通艸
瞿麥 乾薑 礞砂 乾漆 桃仁 茅根 躑躅花 螻蛄 牛黃 藜蘆 金銀箔 胡粉 蟬退 龍腦 蝟
皮 鬼箭羽 馬刀 標鷄¹⁰ 衣魚 神麴 葵子 犀角 大黃

원청(芫青) 반묘 수질 맹충 오두 부자 천웅 칩(野葛) 수은 파두 우슬 의이인 오
공 삼릉 대자석(代赭) 원화 사향 대극 사퇴(蛇脫) 석웅황 석자황 망초 목단피
계괴화(桂槐花) 건우 조각 반하 남성 통초 구맥 건강 망사 건칠 도인 모근 척촉
화 땅강아지(螻蛄) 우황 여로 금은박 호분 설퇴 용뇌 고슴도치가죽(蝟皮) 귀
전우 말조개(馬刀) 배짱이(標鷄) 반대좀(衣魚) 신국 동규자(葵子) 서각 대
황

¹⁰. 標鷄 : 모본에는 ‘標鷄’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1.5. 經候婦人傷寒治法 | 월경하는 여자의 상한 치료법

〔婦人傷寒의 用藥은 與男無異로되 凡用藥에 但合四物湯이 爲異〕

〔여자의 상한에 약을 쓰는 방법은 남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다만 약을 쓸 때에 사물탕(四物湯)을 합하는 것이 다르다〕

1.5.1. 經水適來適斷已來方來의 症 | 월경의 시점에 따라 생긴 증상

頭痛、肢節痛、惡寒、發熱의 等症이 有한 中에 經水가 適來하거나 適斷하거나 又は 經水가 已來하거나 方來하면서 頭痛、肢節痛、惡寒、發熱의 等症이 有하면 傷寒症의 例用藥은 切勿用之하라. 用之면 必有大害이니 柴胡四物湯을 二貼이나 或 三貼을 連用 可也라.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 마침 월경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그리고 월경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막 시작하려 할 때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발열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약을 쓰면 반드시 큰 탈이 생긴다.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 2첩이나 3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5.1.1. 柴胡四物湯 | 시호사물탕

〔一名은 三元湯. 二三貼外에 勿用〕

〔삼원탕(三元湯)이라고도 한다. 2~3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生地黃 各二錢, 川芎、赤芍藥、當歸、黃芩 各一錢, 沙蔘、半夏〔薑汁炒〕、甘艸 各五分. 薑 三片.

시호、생지황 각 2돈, 천궁、적작약、당귀、황금 각 1돈, 사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감초 각 5푼. 생강 3쪽.

但經水適斷者와 經水已來者에 對하여야는 虛症이 小有할 것이니 本方과 如히 人蔘으로 入用 可也오 其外에는 舉皆沙蔘으로 代入 可也라.

다만 때마침 월경이 끝난 경우나 월경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허증(虛症)이 조금 있을 것이니 본방과 같이 인삼을 넣어 쓰는 것이 좋고 그밖에 모든 경우는 사삼을 대신 넣는 것이 좋다.

1.5.2. 經盡後 一二日三四日된 症 | 월경이 끝난 후 1~4일이 되어 생긴 증상

經盡後 一二日三四日되야 外感得者는 勿論虛症이 多하나니 加味香陳八物湯을 隨症加減하야 二三貼을 連用 可也라.

월경이 끝난 후 1~4일이 되어 외감이 생긴 경우에는 논할 필요 없이 허증이 많으니 가미향진팔물탕(加味香陳八物湯)을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2~3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5.2.1. 加味香陳八物湯 | 가미향진팔물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便香附、陳皮、川芎、當歸、熟芩、白芍藥、人蔘、白朮、白茯苓、甘艸 各一錢, 羌活、防風、乾葛 各五分. 薑 三片, 棗 二枚, 葱白 二莖.

향부자〔동변에 법제한다〕、진피、천궁、당귀、숙지황、백작약、인삼、백출、백복령、감초 각 1돈, 강활、방풍、건갈 각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

咳嗽가 有하면 加杏仁、桔梗 各五分.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 각 5푼을 더한다.

渴症이 有하면 加麥門冬、天花粉 各五分.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맥문동、천화분 각 5푼을 더한다.

1.5.3. 經盡後 五六日된 症 | 월경이 끝난 후 5~6일이 되어 생긴 증상

年少壯者 經盡後 五六日되야 外感得者는 雖經後나 氣血이 甚不虛이니 沙蔘香陳八物湯에 隨症加減하야 二貼을 連用 可也라.

나이가 젊고 건강한 여자가 월경 후 5~6일 되어 외감이 생긴 경우에는 비록 월경 후라도 기혈이 그다지 허하지 않으니 사삼향진팔물탕(沙蔘香陳八物湯)을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5.3.1. 沙蔘香陳八物湯 | 사삼향진팔물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便香附、陳皮、川芎、當歸、熟芩、白芍藥、沙蔘、蒼朮、白茯苓、甘艸 各一錢, 升麻、葛根 各七分. 薑 三片, 棗 二枚, 葱白 二莖.

향부자(동변에 법제한다)、진피、천궁、당귀、숙지황、백작약、사삼、창출、백복령、감초 각 1돈, 승마、갈근 각 7푼.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

肢節痛이 有하면 加羌活、防風 各五分.

사지 관절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강활、방풍 각 5푼을 더한다.

咳嗽가 有하면 加杏仁、桔梗 各七分.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 각 7푼을 더한다.

發熱이 有하면 加柴胡、黃芩、生地黃 各一錢.

열이 나는 경우에는 시호、황금、생지황 각 1돈을 더한다.

1.5.4. 總論 | 총론

虛症이 多者는 加味香陳八物湯을 用하여 無不奏効로되 若或不効하여 漸漸添症의 境에 達하여 身熱、煩渴、譫語、自汗의 等症이 有하면 生脉大補湯(「兩感傷寒」 六七八日 大문에 見)二三貼을 連用할것ियो 氣血이 甚不虛者은 沙蔘香陳八物湯을 用하여 無不奏効로되 若或不効하여 漸漸添症의 境에 達하여 頭身痛、發熱、煩渴의 等症이 有하여 壯實人傷寒症이 見하면 加味和解散(「壯實人傷寒」 幾日 大문에 見)에 加生地黃、白芍藥、川芎、當歸 各一錢하여 二三貼을 連用 可也니 此는 經盡後症의 總論也라.

허증이 많은 경우에 가미향진팔물탕(加味香陳八物湯)을 쓰면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지만, 혹시라도 효험이 없어서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러 몸에 열이 나고 번갈이 있으며 헛소리를 하고 자한(自汗)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생맥대보탕(生脉大補湯)(「양감상한 치료법」 ‘내상증이 많은 사람의 6~8일 된 증상’ 부분에 나온다) 2~3첩을 연이어 써야 한다. 기혈이 그다지 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삼향진팔물탕(沙蔘香陳八物湯)을 쓰면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효험이 없어서 증세가 점점 심해지게 되어 머리와 몸이 아프고 열이 나며 번갈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고 장실인(壯實人)에게 나타나는 상한 증세가 보이면 가미화해산(加味和解散)(「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머칠 전부터 가벼운 감기에 걸려 참고 지내온 증상’ 부분에 나온다)에 생지황、백작약、천궁、당귀 각 1돈을 더하여 2~3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이 월경이 끝난 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총론이다.

1.6. 老人男女傷寒治法 | 노인의 상한 치료법

1.6.1. 極老虛人症 | 매우 늙고 허한 사람의 상한증

極老虛人 一二日된 初症狀은 頭痛、肢節痛、惡寒하며 或鼻塞、聲重、流涕、噴嚏하며 或咳嗽 或無汗 或有汗이니 加味補中益氣湯 二貼을 連用하고 溫臥하여 微取汗이면 卽解.

매우 늙고 허한 사람의 1~2일 된 상한 초기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 혹 기침을 하거나 혹 땀이 없거나 있거나 한다. 가미보중익기탕(加味補中益氣湯) 2첩을 연이어 쓰고 따뜻한 곳에 누워서 땀을 조금 내면 곧 낫는다.

1.6.1.1. 加味補中益氣湯 | 가미보중익기탕

(二貼用之)

(2첩을 쓴다)

黃芪(蜜炒) 一錢五分, 人蔘、白朮、甘艸 各一錢, 當歸(身)、陳皮、羌活、防風、川芎 各五分, 升麻、柴胡 各三分. 薑 三片, 棗 二枚, 葱白 二莖.

황기(꿀을 발라서 볶는다) 1돈 5푼, 인삼·백출·감초 각 1돈, 당귀신·진피·강활·방풍·천궁 각 5푼, 승마·시호 각 3푼.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

有汗이면 薑 三片, 葱白 二莖을 去之하라.

땀이 나는 경우에는, 생강 3쪽, 총백 2줄기를 뺀다.

極老虛人이면 羌防芎을 或三分으로 入用 可也라.

매우 늙고 허한 사람의 경우에는 강활 방풍 천궁을 3푼 넣어 쓰는 것이 좋다.

1.6.2. 稍老虛人症 | 조금 늙고 허한 사람의 상한증

稍老虛人雖老나 甚不虛一二月된 初症狀은 頭痛、肢節痛、惡寒하며 或鼻塞、聲重、流涕、噴嚏하며 或咳嗽 或無汗 或有汗이니 八解散(方書所無)二貼을 連用하고 溫臥하여 微取汗이면 卽解.

조금 늙고 허한 사람 중에 늙었어도 그다지 허하지 않은 사람의 1~2일 된 초기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잠기며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 혹 기침을 하거나 혹 땀이 없거나 있거나 한다. 팔해산(八解散)(다른 의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2첩을 연이어 쓰고 따뜻한 곳에 누워서 땀을 조금 내면 곧 낫는다.

1.6.2.1. 八解散 | 팔해산

(二貼用之)

(2첩을 쓴다)

蒼朮、人蔘、白茯苓、陳皮、半夏(薑汁炒)、藿香、川芎、甘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창출、인삼、백복령、진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곽향、천궁、감초 각 1돈. 생강 3쪽, 대추 2개.

咳嗽가 有하면 加杏仁、桔梗 各五分.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행인、길경 각 5푼을 넣는다.

1.6.3. 總論 | 총론

無論極老虛人稍老虛人하고 傷寒初症에 已上과 如히 用藥하야도 傳變〔傳經移熱〕의 症에 達하야 頭痛、發熱、煩渴、譫語、不大便 或大便燥의 等症이 見하거나 或 初症時부터 不爲用藥하야 傳變〔傳經移熱〕의 症에 達하야 頭痛、發熱、煩渴、譫語、不大便 或大便燥의 等症이 見하면, 雖老虛人이나 此는 邪熱이 旺盛한 所致이니 邪熱을 全補之劑로는 到底히 乾淨키 不能한즉 朝大黃暮附子의 用法과 如히 不得不 柴芩清邪熱之劑 一二貼을 暫用後에 繼用補藥이면 庶得萬全하나니 大端히 審慎注意하야 加減和解散을 乍用 可也오 不大便或大便燥者는 下利劑을 不敢用이니 內治하라면 葶麻子油一鍾子을 服用하고 外治하라면 猪膽導法이나 油醬通法〔并見「大便門」〕을 使用 可也라.

매우 늙고 허한 사람이든 조금 늙고 허한 사람이든 막론하고 상한 초기 증상에 이상과 같이 약을 써도 전변(傳變)(전경(傳經)하여 열이 옮겨가는 것이다)되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번갈아 있고 헛소리를 하며 대변이 나오지 않거나 대변이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초기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약을 쓰지 않아 전변(傳變)(전경(傳經)하여 열이 옮겨가는 것이다)되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번갈아 있고 헛소리를 하며 대변이 나오지 않거나 대변이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비록 늙고 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열(邪熱)이 왕성해졌기 때문이다. 사열은 보해주는 약으로는 도저히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는 대황을 쓰고 저녁에는 부자를 쓰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시호와 황금 같이 사열을 없애는 약 1~2첩을 잠시 쓴 후에 이어서 보(補)해주는 약을 쓰면 거의 완전한 치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속고하여 가감화해산(加減和解散)을 잠시 쓰는 것이 좋다.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대변이 마르는 경우에는 설사시키는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내치법(內治法)을 쓰려면 피마자기를 1종지를 복용하고 외치법(外治法)을 쓰려면 돼지쓸개로 변을 유도하는 방법¹¹이나 기름·간장으로 변을 통하게 하는 방법¹²〔모두 「대변문(大便門)」에 나온다〕을 쓰는 것이 좋다.

1.6.3.1. 加減和解散 | 가감화해산

〔極老虛人은 一貼, 稍老虛人은 二貼〕

〔매우 늙고 허한 사람은 1첩을 쓰고, 조금 늙고 허한 사람은 2첩을 쓴다〕

柴胡 一錢五分, 黃芩、人蔘〔極老虛人은 人蔘으로 入하고, 稍老虛人은 沙蔘으로 代入〕、天花粉、麥門冬〔去心〕、白芍藥 各一錢, 生地黃 七分, 知母、甘艸 各五分, 薑 三片.

시호 1돈 5푼, 황금、인삼〔매우 늙고 허한 사람은 인삼을 넣고, 조금 늙고 허한 사람은 사삼으로 대신 넣는다〕、천화분、맥문동〔심을 뺀다〕、백작약 각 1돈, 생지황 7푼, 지모、감초 각 5푼. 생강 3쪽.

11. 돼지쓸개로 변을 유도하는 방법 : “治大便不通. 取大猪膽一箇, 瀉汁, 和醋少許, 灌入穀道中, 須臾大便自通. 대변불통을 치료할 때는 즙을 뺀 큰 돼지쓸개 1개에 약간의 식초를 섞은 후 항문으로 주입한다. 그러면 곧 대변이 저절로 나온다.” 『동의보감』「내경편」대변문(導便法) 도변법 ↩

12. 기름、간장으로 변을 통하게 하는 방법 : “俗方, 以清醬, 香油相和, 灌肛內即通. 或以生桔梗浸油醬, 挿入肛內亦通. 민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장과 참기름을 섞어 항문 속에 주입하면 대변이 나온다. 혹 길경(생것을 기름이나 간장에 담근 것)을 항문 속에 넣어도 대변이 나온다.” 『동의보감』「내경편」대변문(導便法) 도변법 ↩

1.7. 小兒傷寒治法 | 소아의 상한 치료법

〔貪睡、口中熱、呵欠、煩悶 傷風也오 頭目痛、畏人、畏寒 傷寒也오 頭身痛、鼻涕、咳嗽、嘔嘔、*頰赤*[^13]、眼澁、山根青 皆傷風寒也라〕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입속이 뜨거우며 하품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풍(風)에 상한 것이다. 머리와 눈이 아프고 사람을 멀리하고 추위를 싫어하는 것은 한(寒)에 상한 것이다. 머리와 몸이 아프고 콧물·기침·재채기가 나며 뺨이 붉고 눈이 짙어지며 산근(山根)이 푸른 것은 모두 풍한(風寒)에 상한 것이다.〕

1.7.1. 一三三四五六歲된 症 | 1~6세의 상한증

一三三四五六歲에 傷風寒初症에 發熱咳嗽煩渴의 等症이 見하면 此는 但是外感症이라 稱할 畚만 아니라 亦云變症(머리매)이라 하나니 加味惺惺散 二貼을 連用 可也라.

6살 이하의 소아가 풍한에 상한 초기에 발열·기침·번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외감증(外感症)이라고 할 뿐 아니라 변증(變症)¹⁴(머리매)이라고도 한다. 가미성성산(加味惺惺散)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7.1.1. 加味惺惺散 | 가미성성산

〔『濟衆新編』은 細辛 薄荷가 有之하고 『保幼新編』은 細辛 薄荷가 無也라. 二貼用之〕
〔『제중신편』에는 세신 박하가 들어가 있고, 『보유신편』은 세신 박하가 없다. 2첩을 쓴다〕

人蔘、白朮、白茯苓、桔梗(去蘆頭)、川芎、白芍藥、天花粉、柴胡、前胡、防風、甘艸 各二分五厘, 細辛、薄荷 各一分. 薑 二片.

인삼, 백출, 백복령, 길경(노두를 제거한다), 천궁, 백작약,天花분, 시호, 전호, 방풍 감초 각 2푼 5리, 세신, 박하 각 1푼. 생강 2쪽.

變症이 甚이면 加朱砂、全蝎 各二分五厘, 麝香小許 臨服時에 調服.

변증(變症)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전갈 각 2푼 5리를 더하고 복용할 때에 사향을 약간 타서 복용한다.

有汗이면 傷風이니 加生黃芪 二分五厘.

땀이 나는 것은 풍(風)에 상한 것이니 황기(생것을 쓴다) 2푼 5리를 더한다.

無汗이면 傷寒이니 加紫蘇葉 二分五厘.

땀이 나지 않는 것은 한(寒)에 상한 것이니 자소엽 2푼 5리를 더한다.

咳嗽氣喘이 有하면 加貝母、杏仁 各二分五厘.

기침을 하거나 숨이 가쁜 경우에는 패모·행인 각 2푼 5리를 더한다.

泄瀉가 有하면 加砂仁炒 二分五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인(볶는다) 2푼 5리를 더한다.

驚風症이 或見이면 加酸棗仁炒、天麻、白殭蠶¹⁵ 各二分五厘.

경풍(驚風)이 간혹 생기는 경우에는 산조인(볶는다)·천마·백강잠 각 2푼 5리를 더한다.

但五六歲에부터는 重量을 倍入 可也라.

5~6세부터는 중량을 2배로 넣는 것이 좋다.

1.7.2.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歲의 된 症 | 1~8세의 상한증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歲에 傷風寒稍久의 症에 發熱、咳嗽、煩渴하다가 頭身이 忽大熱하야 驚風의 症이 微發하면 此는 邪熱이 生風한 所致이니 人蔘羌活散 二貼을 連用 可也라.

8세 이하의 아이가 풍한에 상한 것이 조금 오래 되어 발열·기침·번갈이 있다가 머리와 몸에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며 경풍(驚風)의 증상이 약간 생기는 것은 사열(邪熱)로 풍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삼강활산(人蔘羌活散)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7.2.1. 人蔘羌活散 | 인삼강활산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羌活、獨活、柴胡、前胡、枳殼(麩炒)、桔梗(去蘆頭)、人蔘、赤茯苓、川芎、甘艸 各二分, 天麻、地骨皮 各一分. 薄荷 三葉.

강활、獨활、시호、전호、지각(밀기울에 볶는다)、길경(노두를 제거한다)、인삼、적복령、천궁、감초 각 2푼, 천마 지골피 각 1푼. 박하 3장.

驚風症이 甚이면 加防風、白殭蠶¹⁶、全蝎、朱砂 各二分. 但五六七八歲에부터는 重量을 倍入 可也라.

경풍(驚風)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방풍、백강잠、전갈、주사 각 2푼을 더 한다. 단 5~8세부터는 중량을 2배로 넣는 것이 좋다.

1.7.3. 一三三四五六七八歲의 驚風症 | 1~8세의 경풍증

一三三四五六七八歲에 傷風寒稍久의 症에 發熱咳嗽煩渴하다가 頭身이 忽大熱하야 驚風의 症이 微發하면 此는 邪熱이 生風한 所致이니 人蔘羌活散 二貼을 連用하야도 減症치안코 驚風症이 尤甚大作하면 加味清心靈神湯 二三貼을 連用이면 卽止하니라.

8세 이하의 아이가 풍한에 상한 것이 조금 오래 되어 발열·기침·번갈이 있다가 머리와 몸에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며 경풍(驚風)의 증상이 약간 생기는 것은 사열(邪熱)로 풍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삼강활산(人蔘羌活散) 2첩을 연이어 써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경풍(驚風)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에는 가미 청심영신탕(加味清心靈神湯) 2~3첩을 연이어 쓰면 곧 멎는다.

1.7.3.1. 加味清心靈神湯 | 가미청심영신탕

(二三貼用之)

(2~3첩을 쓴다.)

酸棗仁〔炒研〕九分, 麥門冬〔去心〕、白茯苓、膽南星 各七分, 柴胡、防風、白僵蠶¹⁷ 各五分, 黃連〔薑汁炒〕、人蔘、竹茹 各三分, 全蝎 二個. 常麝香〔小許臨服時에 調服〕.

산조인(볶아서 간다) 9푼, 맥문동(심을 뺀다), 백복신, 남성(소 쓸개에 넣고 법제한다) 각 7푼, 시호, 방풍, 백강잠 각 5푼, 황련(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인삼, 죽여 각 3푼, 전갈 2개, 상사향(먹을 때 조금 타서 복용한다).

但一二三四歲에부터는 重量을 半減用之可也라. 小兒諸般急驚風에 百發百中이요 屢試屢驗이라. 若小兒吐瀉後에 發한 驚風은 名曰慢驚風이니 此藥이 大忌요 錢氏 白朮散〔見「小兒門」〕에 加減用之 可也라.

다만 1~4세는 중량을 절반으로 줄여 쓰는 것이 좋다. 소아의 여러 급경풍에 백발백중이며 누차 시험해서 효험을 보았다. 아이가 토하고 설사한 후에 생긴 경풍은 만경풍(慢驚風)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 약을 써서는 안 되며 전씨백출산(錢氏白朮散)¹⁸(「소아문」에 보인다)을 가감하여 쓰는 것이 좋다.

1.7.4. 喉痰鳴咳嗽驚風症 | 목에 가래가 그르렁거리고 기침을 하며 경풍이 있는 증상

已上感冒에 喉痰鳴하며 咳嗽하며 驚風症이 初起면 油葱煎을 用之하라. 此時僻地
에 醫藥이 遠者 神効한 單方捷經也라.

이상의 감기(感冒)에 목에 가래가 그르렁거리고 기침을 하며 경풍의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충전(油葱煎)을 쓴다. 병 들었을 때 궁벽진 곳에 있
어 의원이나 약재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 신비한 효과를 내는 단방으로 치료가
빠르다.

1.7.4.1. 油葱煎 | 유충전

(一二次用之)

(1~2번 쓴다)

葱鬚不拘多小, 眞油 一鍾子.

파뿌리 적당량, 참기름 1종지.

葱鬚을 細切하여 眞油에 入하여 一二沸煎하여 其油만 服之하라.

파뿌리를 잘게 썰어서 참기름에 넣고 1~2차례 끓여서 참기름만 복용한다.

1.7.5. 喘促症 | 숨이 가쁜 증상

發病이 日久에 肺臟에 留連한 寒氣가 變하여 熱이 되야 咳嗽症이 甚한 餘波에 喉痰
이 鳴하며 喘促症이 發한 者에 對하여 初症輕者는 加味三拗湯 三四貼을 連用하고
稍久重者는 馬脾風散 一貼을 用之하여 不快하면 不得已 一貼을 又用하고 切勿更
用하라. 此是劇毒藥이니 喘促症이 頓減後에 加味生脉散(「壯實人傷寒」喘促 대문
에 見)二貼을 繼用하여 淸補 可也라.

발병한 지 오래되어 폐장(肺臟)에 머무는 한기가 열로 변하여 기침이 심해진 여파로 목에 가래가 그르렁거리고 숨이 가빠진 경우, 초기에 증상이 가벼우면 가미삼요탕(加味三拗湯) 3~4첩을 연이어 쓴다. 증상이 조금 지속되어 증상이 심해지면 마비풍산(馬脾風散) 1첩을 쓰되 마비풍산 1첩을 써도 낫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1첩을 다시 쓰고 절대 그 이상은 쓰지 말아야 한다. 마비풍산은 독성이 강한 약이므로 숨이 가쁜 증세가 꺾여 줄어든 후에는 가미생맥산(加味生脉散)(「장실인의 상한 치료법」 ‘숨이 가쁜 증상’ 부분에 나온다) 2첩을 연이어 써서 서늘한 성질의 약재로 보해주는 것이 좋다.

1.7.5.1. 加味三拗湯 | 가미삼요탕

(三四貼用之)

(3~4첩을 쓴다)

麻黃(根과 節을 不去)、杏仁(皮와 尖을 不去)、甘艸(生) 各一錢, 貝母(薑汁炒) 七分.

마황(뿌리와 마디를 떼 내지 않는다)、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지 않는다)、감초(생것을 쓴다) 각 1돈, 패모(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 7푼.

喘甚이면 加紫菀、款冬花 各五分.

숨이 심하게 가쁜 경우에는 자완、관동화 각 5푼을 더한다.

1.7.5.2. 馬脾風散 | 마비풍산

(一貼或二貼用之)

(1첩이나 2첩을 쓴다)

朱砂 二錢五分, 甘遂 一錢五分, 輕粉 五分。

주사 2돈 5푼, 감수 1돈 5푼, 경분 5푼.

右爲末均和하야 每取一字(二分半也)하야 溫漿水¹⁹半器에 眞油一點을 大滴하야 該油花上에 藥末을 注置하야 待沉下에 却傾去漿水 漿水²⁰하고 以指로 藥末을 掬取하야 口中的 天井에 塗納하고 仍卽吸乳면 神効.

이상을 가루 내어 골고루 섞어서 1자(2푼 반이다)씩 쓴다. 따뜻한 좁쌀죽 윗물 반 그릇에 참기름을 크게 방울지게 하여 1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생긴 기름막 위에 약 가루를 붓고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좁쌀죽 윗물은 따라버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약가루를 집어서 아이 입속 천정에 바른 후 젖을 물리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7.6. 六七八九十歲論說 | 6~10세에 대한 논설

六七八九十歲以上兒는 外感風寒症의 用藥을 自初至終하야 大人의 「壯實人傷寒門」을 依하야 用之 可也요〔詳見「壯實人傷寒門」〕但 重量은 半減 用之하랴.

6~10살 이상의 아이에게 외감풍한(外感風寒)의 증상으로 약을 쓸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인 가운데 「장실인(壯實人)의 상한 치료법」과 같이 쓰는 것이 좋다(자세한 것은 「장실인의 상한 치료법」에 나온다). 다만 중량은 반으로 줄여서 쓴다.

1.7.7. 總論 | 총론

總論이라. 普通大小兒一三五六七八九十歲以上 外感初症에 對하야 傷風傷寒을 勿論하고 蔘蘇飲(「壯實人傷寒門」에 見)에 隨症加減 用之함이 古方에 通用이라 云하얏스나 余의 經驗閱歷으로는 一三五六歲或六歲까지는 惺惺散에 隨症加

減用之함이 得當하고 六七八九十歲以上은 蓼蘇飲에 隨症加減 用之함이 適合하니 後來者가 試之해야사 方知余之中囑矣리라.

총론이다. 보통 1~10살 이상의 크고 작은 아이의 외감 초기 증상에 대하여는 상풍(傷風)과 상한(傷寒)에 상관없이 삼소음(蓼蘇飲)〔「장실인의 상한 치료법」에 나온다〕을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쓰는 것이 옛 방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나의 경험에 비춰보면 1~6살까지는 성성산(惺惺散)을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고 6~10살 이상은 삼소음을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쓰는 것이 적합하다. 후학들이 시험해 보면 내가 적합한 처방을 썼음을 비로소 알 것이다.

13. 頰赤 : 모본에는 ‘頰赤’으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 「소아」를 근거로 수정하였다. ↩

14. 變증(變症) : 소아의 변증(變蒸)을 의미한다. ↩

15. 白殭蠶 : 모본에는 ‘白干蠶’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16. 白殭蠶 : 모본에는 ‘白干蠶’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17. 白殭蠶 : 모본에는 ‘白干蠶’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18. 錢氏백출산(錢氏白朮散) : “白朮散. 治吐瀉日久不止, 津液枯竭, 煩渴引飲, 欲成慢驚風. 葛根二錢, 人參, 白朮, 白茯苓, 木香, 藿香, 甘草各一錢. 右麤末, 每二錢, 水煎任意服. 泄瀉, 加山藥, 白扁豆, 肉豆蔻, 已成慢驚, 加天麻, 細辛, 全蝎, 白附子. 驚風, 泄瀉煩渴, 皆津液內耗也. 不問陰陽, 多煎滿意, 取足飲之, 彌多彌好. 一名錢氏白朮散. 『錢乙』一名清寧散. 『得效』백출산. 토사가 오랫동안 멎지 않아 진액이 고갈되고 번갈로 물을 찾으며 만경풍이 되려는 경우를 치료한다. 갈근 2돈, 인삼 백출 백복령 목향 곽향 감초 각 1돈. 이 약들을 거칠게 가루내어 2돈씩 물에 달여 임의로 먹인다. 설사에는 산약 백편두 육두

구를 넣고, 이미 만경풍이 되었을 때는 천마 세신 전갈 백부자를 넣는다. 경풍으로 설사 번갈이 있을 때는 모두 속에서 진액이 고갈된다. 음양을 불문하고 아주 많이 달여 충분히 먹이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전씨백출산이라고도 한다.『전을』 청령산이라고도 한다.『득효』 『동의보감』 「잡병편」 소아(小兒)

←

19. 漿水 : 모본에는 ‘醬水’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에 따라 수정하였다.

←

20. 漿水 : 모본에는 ‘醬水’로 되어 있으나 『동의보감』에 따라 수정하였다.

←

1.8. 상한과 비슷한 경우의 치료법 | 類傷寒治法

1.8.1. 傷食成積의 症 | 식상으로 적이 생긴 증상

凡傷食成積에 亦能發熱 或惡寒、頭痛하여 恰似傷寒初症이로되 但心腹이 飽悶하며 噎噎嘔逆이 爲異니 詳히 問症하여 食傷症이 確的한 然後에 陶氏平胃散을 連用하면 卽解하니라.

식상(食傷)으로 적(積)이 생겨도 발열이 있고 경우에 따라 오한·두통이 있어 상한의 초기 증상과 흡사하다. 다만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하며 트림과 구역질이 있는 것이 다르다. 증상을 자세히 물어 식상이 확실해진 연후에 도씨평위산(陶氏平胃散)을 연이어 쓰면 곧 낫는다.

1.8.1.1. 陶氏平胃散 | 도씨평위산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蒼朮 一錢五分, 厚朴(薑汁炒)、陳皮、白朮 各一錢, 黃連、枳殼(麩炒) 各七分, 草菓(炒研) 六分, 神麴(炒研)、山楂肉、乾薑(炮)、青木香、甘艸 各五分. 薑 三片.

창출 1돈 5푼, 후박(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진피、백출 각 1돈, 황련、지각(밀기울에 볶는다) 각 7푼, 초과(볶아서 간다) 6푼, 신국(볶아서 간다)、산사육、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청목향、감초 각 5푼. 생강 3쪽.

1.9. 暑月感冒治法 | 여름철 감기 치료법

1.9.1. 壯實人初症 | 장실인의 초기 증상

溽暑陰風이 薰蒸襲人이면 初症狀이 恰似傷寒하야 頭痛、肢節痛、惡寒、發熱의 等症이 見하나니 暑門香葛湯 二貼을 連用하고 禁風이면 卽解하니라.

습하고 더운 바람이 사람에게 침범해 들어오면 초기 증상이 상한과 흡사하여 머리가 아프고 사지 관절이 아프며 오한,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서문향갈탕(暑門香葛湯) 2첩을 연이어 쓰고 바람을 쐬지 않으면 곧 낫는다.

1.9.1.1. 暑門香葛湯 | 서문향갈탕²¹

(二貼外에 勿用, 老虛人은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고, 노인이나 허한 사람에게는 쓰지 말라)

香薷 三錢, 葛根 二錢, 厚朴(薑汁炒)、白扁豆(去皮) 各一錢五分, 白芍藥、升麻、甘艸 各一錢. 薑 三片, 葱白 二莖.

향유 3돈, 갈근 2돈, 후박(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백편두(껍질을 제거한 다) 각 1돈 5푼, 백작약、승마、감초 각 1돈. 생강 3쪽, 총백 2줄기.

心胃이 煩熱이면 加黃連 七分五厘.

가슴이 답답하고 번열(煩熱)이 있는 경우에는 황련 7푼 5리를 더한다.

1.9.2. 老虛人初症 | 노인이나 허한 사람의 초기 증상

老人이나 虛人의 暑感症에는 發散의 劑을 不敢用이니 清暑益氣湯 二貼을 連用 可也라.

노인이나 허한 사람의 여름감기(暑感)에는 발산하는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청서익기탕(淸暑益氣湯) 2첩을 연이어 쓰는 것이 좋다.

1.9.2.1. 淸暑益氣湯 | 청서익기탕

(二貼 用之)

(2첩을 쓴다)

蒼朮 一錢五分, 黃芪〔蜜炒〕、升麻 各一錢, 人蔘、白朮、陳皮、神麴〔炒研〕、澤瀉 各五分, 黃栢〔酒炒〕、當歸、青皮、麥門冬〔去心〕、乾葛、甘艸 各三分, 五味子 九粒.

창출 1돈 5푼, 황기(꿀을 발라서 볶는다)、승마 각 1돈, 인삼、백출、진피、신국(볶아서 간다)、택사 각 5푼, 황백(술에 축여 볶는다)、당귀、청피、맥문동(심을 뺀다)、건갈、감초 각 3푼, 오미자 9알.

非但老虛人暑感이라 凡暑月諸虛症에 要素의 劑也라.

노인이나 허한 사람의 여름감기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여러 허증(虛症)에 긴요한 약이다.

1.9.3. 壯實人稍久症 | 장실인의 조금 오래된 증상

壯實人感冒暑風の 稍久에 身熱頭身痛 不泄瀉或泄瀉 嘔吐驚風の 等症이 見하면 二香散 二貼을 連用하면 卽解.

장실인(壯實人)의 여름철 감기가 조금 오래 되어 몸에 열이 나고 머리와 몸이 아프며 설사 하지 않고(설사 하는 경우도 있다) 토하며 경풍이 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향산(二香散) 2첩을 연이어 쓰면 곧 낫는다.

1.9.3.1. 二香散 | 이향산

(二貼用之)

(2첩을 쓴다)

便香附、香薷 各二錢, 紫蘇葉、陳皮、蒼朮 各一錢, 厚朴〔薑汁炒〕、白扁豆〔去皮〕、甘艸 各五分, 木果 二片. 薑 三片, 葱白 二莖.

향부자〔동변으로 법제한다〕、향유 각 2돈, 자소엽、진피、창출 각 1돈, 후박〔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백편두〔껍질을 제거한다〕、감초 각 5푼, 모과 2쪽, 생강 3쪽, 총백 2줄기.

驚風症이發이면 加黃連 七分, 天麻、白殭蠶²²、全蝎 各五分.

경풍의 증상이 생기면 황련 7푼, 천마、백강잠、전갈 각 5푼을 더한다.

²¹. 서문향갈탕 : 『제중신편』 「서」에 나오는 향갈탕(香葛湯)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제중신편』 「한」에 나오는 향갈탕과 구분하기 위하여 ‘서문향갈탕’이라고 하였다. “香葛湯. 『入門』. 治暑感有熱者, 卽升麻葛根湯〔寒門〕合香薷散也.” 『제중신편』 「서」 서열통치(暑熱通治) ←

²². 白殭蠶 : 모본에는 ‘白干蚕’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1.10. 瘟疫治法 | 온역 치료법

1.10.1. 壯實人初症, 老虛人初症 | 장실인 및 노인이나 허한 사람의 초기 증상

瘟疫의 根因이 冬傷於寒이면 春必病瘟이요 又は 春應煖인데 反寒과 夏應熱인데 反凉과 秋應凉인데 反熱과 冬應寒인데 反溫하면 四時을 勿論하고 老少을 勿論히 此病이 發生하나니 其病의 初起症狀이 惡寒、發熱、頭痛、肢節痛、項強痛、晴疼하야 恰似傷寒初症하며 或飲食과 起居는 如常하며 症祟가 甚하면 聲啞, 或眼赤口瘡하고 大腮小腮가 腫痛하며 喉痺咳嗽하나니 初症에 壯實人은 人蔘敗毒散(「寒門」)에 加乾葛 一錢하고 老虛人은 升麻葛根湯(「寒門」)을 用之하라.

온역(瘟疫)의 근본 원인은 겨울에 한사(寒邪)에 상한 것으로 봄에 온병을 앓게 된다.²³ 또 봄은 따뜻해야 하는데 도리어 춥거나 여름은 더워야 하는데 도리어 서늘하거나 가을은 서늘해야 하는데 도리어 덥거나 겨울은 추워야 하는데 도리어 따뜻하면 계절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온역이 생긴다. 온역의 초기 증상은 오한·발열이 있고 머리가 아프며 사지 관절이 아프고 목덜미가 뻣뻣하게 아프며 눈동자가 아픈 것으로 흡사 상한의 초기 증상 같다. 간혹 평소처럼 먹고 생활하나 증세가 심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눈이 벌겋게 되고 입이 헐거나 크고 작은 시종(腮腫)이 생기면서 아프거나 후비(喉痺)가 생기고 기침을 하기도 한다. 초기 증상일 경우 장실인(壯實人)은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한문(寒門)」에 나온다)에 건갈 1돈을 더하고, 노인이나 허한 사람은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한문(寒門)」에 나온다)을 쓴다.

1.10.1.1. 人蔘敗毒散 | 인삼패독산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乾葛 一錢, 羌活、獨活、柴胡、前胡、枳殼、桔梗、川芎、赤茯苓、人蔘、甘艸
各七分, 薄荷 小許. 薑 三片.

건갈 1돈, 강활·독활·시호·전호·지각·길경·천궁·적복령·인삼·감
초 각 7푼, 박하 조금. 생강 3쪽.

1.10.1.2. 升麻葛根湯 | 승마갈근탕

(二三貼 用之)

(2~3첩을 쓴다.)

葛根 二錢, 白芍藥、升麻、甘艸 各一錢. 薑 三片, 葱白 二莖.

갈근 2돈, 백작약 승마 감초 각 1돈. 생강 3쪽, 총백 2줄기.

1.10.2. 半表半裏症 | 4~6일 된 반표반리증

四五六日이되야 半表半裏症(症狀은 傷寒半表半裏症과 恰似하니 「傷寒門」에 見
함)이 見하면 小柴胡湯(「寒門」)을 用之하라.

온역이 4~6일이 되어 반표반리증(증상은 상한의 반표반리증과 흡사하다. 「상
한문」에 나온다)이 나타나면 소시호탕(小柴胡湯)(「한문(寒門)」에 나온다)을
쓴다.

1.10.2.1. 小柴胡湯 | 소시호탕

(二三貼 用之)

(2~3첩을 쓴다.)

柴胡 三錢, 黃芩 二錢, 沙蔘、半夏〔薑汁炒〕各一錢, 甘艸 五分. 薑 三片, 棗 二枚.

시호 3돈, 황금 2돈, 사삼·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각 1돈, 감초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1.10.3. 裏症 | 6~8일 된 이증

六七八日이되야 裏症(症狀은 傷寒裏症과 恰似하니 「傷寒門」에 見함)이 見하면
大柴胡湯〔「寒門」〕을 用之하라.

온역이 6~8일이 되어 이증(증상은 상한의 이증과 흡사하다. 「상한문」에 나온
다)이 나타나면 대시호탕(大柴胡湯)〔「한문(寒門)」에 나온다〕을 쓴다.

1.10.3.1. 大柴胡湯 | 대시호탕

〔二貼外에 勿用〕

〔2첩 넘게 쓰지 말라〕

柴胡 四錢, 黃芩、白芍藥 各二錢五分, 大黃 二錢, 枳實〔麩炒〕一錢, 半夏〔薑汁炒〕
一錢. 薑 三片, 棗 二枚.

시호 4돈, 황금·백작약 각 2돈 5푼, 대황 2돈, 지실〔밀기울에 볶는다〕1돈, 반
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1돈. 생강 3쪽, 대추 2개.

1.10.4. 發狂泄瀉症 | 발광·설사증

煩熱發狂하며 或大便이 泄瀉하면 柴苓湯〔「寒門」〕에 去桂心하고 代入黃連하고 加
乾葛 一錢하야 用之하라.

번열(煩熱)로 발광(發狂)하거나 혹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령탕(柴苓湯)(「한문(寒門)」에 나온다)에 계심 대신 황련을 넣고 건갈 1돈을 더하여 쓴다.

1.10.4.1. 加減柴苓湯 | 가감시령탕

(二三貼 用之)

(2~3첩을 쓴다.)

柴胡 一錢六分, 澤瀉 一錢三分, 乾葛 一錢, 白朮、猪苓、赤茯苓 各七分五厘, 半夏〔薑汁炒〕七分, 黃芩、沙蔘、甘艸 各六分, 黃連 三分. 薑 三片.

시호 1돈 6푼, 택사 1돈 3푼, 건갈 1돈, 백출·저령·적복령 각 7푼 5리, 반하〔생강즙에 축여서 볶는다〕7푼, 황금·사삼·감초 각 6푼, 황련 3푼. 생강 3쪽.

1.10.5. 大頭瘟疫 | 대두온증

大頭瘟疫은 寒熱、頭痛하며 項과 頤이 腫大如斗하며 甚則潰裂하고 又染他人이니 耳前과 耳後에 腫起한 者は 名曰蝦蟆瘟이요 頤와 頤이 腫起한 者は 名曰鸕鶿瘟이라. 十에 八九가 死하나니 普濟消毒飲子를 連用하면 神効하니라.

대두온(大頭瘟)의 증상은 오한·발열·두통이 있고 목과 턱이 뒷박만큼 부으며 심한 경우에는 터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도 한다. 귀 앞뒤부터 붓기 시작하는 것을 하마온(蝦蟆瘟)이라 하고 턱부터 붓기 시작하는 것을 노자온(鸕鶿瘟)이라고 한다. 십중팔구 죽게 된다고 하지만 보제소독음자(普濟消毒飲子)를 연이어 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10.5.1. 普濟消毒飲子 | 보제소독음자

(五六貼을 連用. ◦重兩은 拙軒公이 較定)

(5~6첩을 연이어 쓴다. ◦중량은 출헌공께서 고치셨다.)

黃芩〔酒炒〕、黃連〔酒炒〕 各一錢二分, 沙蔘 八分, 陳皮、桔梗〔去蘆頭〕、玄蔘、柴胡、甘艸 各五分, 牛方子〔研〕、連翹 各三分, 升麻、白殭蠶²⁴、馬勃、板藍根〔無則代用靑黛〕、薄荷、防風、川芎、當歸 各二分.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황련(술에 축여 볶는다) 각 1돈 2푼, 사삼 8푼, 진피、길경(노두를 제거한다)、현삼、시호、감초 각 5푼, 우방자(간다)、연교 각 3푼, 승마、백강잠、마발、판람근(없으면 청대로 대신한다)、박하、방풍、천궁、당귀 각 2푼.

²³. 겨울에.....된다 : 『내경』의 문장을 이용한 표현이다. 문맥에 맞게 어투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冬傷於寒, 春必溫病.” 『소문』 「생기통천론」 ↩

²⁴. 白殭蠶 : 모본에는 ‘白干蚕’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하였다. ↩

1.11. 傷寒經驗方要撮跋 | 상한경험방요촬발

余聞故曹拙軒先生，隱居于日星山下，早服孝行進士石南公之義，方好讀聖賢書。兼究醫學，徹其妙奧，世稱大方家，而尤精於傷寒治法，多有發前人所未發者，試之無不應。

내가 들으니 작고하신 졸헌 선생께서는 일성산(日星山) 기슭에 조용히 사시면서 일찍이 효행으로 이름난 진사 석남공(石南公, 졸헌의 부친인 석남石南 조석창曹錫昌)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성현의 글을 즐겨 읽으셨다. 또한 의학을 함께 익히셨는데 오묘한 이치를 꿰뚫어서 사람들이 대방가(大方家)라고 불렀으며 특히 상한의 치료법을 자세히 연구하여 옛 사람들이 밝히지 못한 것까지 밝힌 바가 많았고 실제로 적용하면 그대로 되지 않음이 없었다.

其胤君秉侯，得其口授心傳法，編以次之，翻以譯之者，欲使世人，皆瞭然易曉，而將付剞劂，俾之家儲而戶藏，雖機括不熟者，輒開卷取方，對症投劑，則病者以蘇，夭者以壽也。其述事也，可謂善矣！

그 아들 병후 군이 선친께서 말과 마음으로 전하신 뜻을 차례대로 엮고 풀어 내놓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쉽고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함이다. 판각하여 각 집에 보관하여 비록 요점을 잘 파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득 책을 펼쳐 처방을 고르고 증상을 살펴 약을 투여한다면 병든 자는 되살아나고 요절할 자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선친의 뜻을 훌륭히 이루었다고 할 만하지 않은가!

嗚呼！窮則獨善其身，達則兼善天下，士君子之道也。人生斯世，既不能達而兼善，則當學醫著書，使惠及于人，澤施于世，與斯民共躋於壽域，亦豈非兼善之一事耶？此古人所以願爲良醫也，今吾所以有感於此書也。故不可無一辭焉。

아! 곤궁할 때는 홀로 그 자신의 선함을 닦고 출세를 하면 천하를 함께 선함으로 이끄는 것이 사군자(士君子)의 도리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출세하여 천하를 함께 선함으로 이끌 수 없다면 의학을 익히거나 책을 저술하여 사람

들에게 은혜가 미치게 하고 세상에 은택이 베풀어지게 해야 할 것이니 백성들을 함께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어찌 천하를 선함으로 이끄는 한 가지 일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옛 사람들이 좋은 의원이 되기를 원했던 까닭이며 내가 지금 이 책에 감동받은 까닭이다.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白馬三三日 白癡居士 尹忠夏識

경오년(1930년) 3월 3일 백치거사(白癡居士) 윤충하(尹忠夏) 쓰다.

2.1. 해제

상한(傷寒)에 대한 문제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최초의 임상 이론이 장중경(張仲景)의 저술인 『상한론(傷寒論)』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상 대부분의 의가(醫家)들은 『내경(內經)』과 함께 『상한론』을 자기 이론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으로 학설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통의학에서 이 ‘상한’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서적의 간행을 보더라도 상한론 혹은 상한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정통했다고 알려진 의가도 매우 드물다. 김남일은 한국의 학술유파 가운데 하나로 “동의상한학파(東醫傷寒學派)”를 제안 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中國), 일본(日本) 등과 비교할 때, 본래 상한론(傷寒論) 연구(研究)의 전통(傳統)이 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¹

그렇다면 일본식 상한학(傷寒學)²의 영향을 받기 전 조선에서 이루어진 상한 연구의 학술 경향은 전무한 것이며 알 수 없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상한경험방요촬(傷寒經驗方要撮)』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식 상한학 유입 이전에 한국 고유 상한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비록 일제강점기에 간행되었으나 그 내용은 일본식 상한학이 유입되기 전인 구한말에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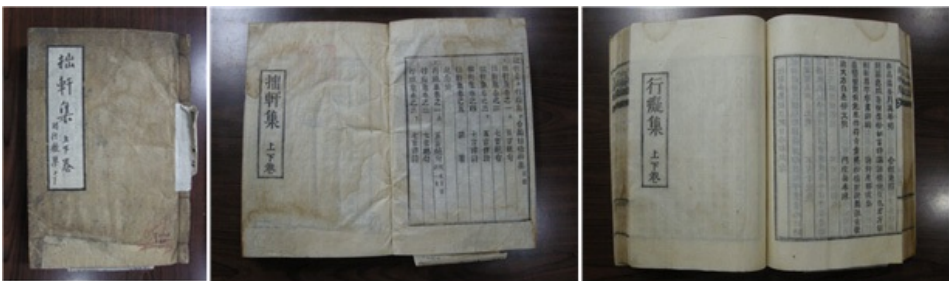
2.1.1. 『상한경험방요촬』의 저자

『상한경험방요촬』은 조택승(曹澤承), 조병후(曹秉侯) 부자에 의해 저술되었다. 아버지 조택승과 아들 조병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2대에 걸쳐 전남 해남지방에서 의술(醫術)을 펼친 이들이다. 조택승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字)는 태안(大安), 호(號)는 줄헌(拙軒)이다.³ 그는 구한말인 1841년(헌종憲宗 7) 9월 13일에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⁴ 그의 아버지 조석창(曹錫昌)은 효행으로 철종(哲宗)을 감화시켜 당대에 유명하였다고 한다.⁵ 조택승 역시 일성산(日星山) 아래 은거하면서 유학

(儒學)에 전념하여 1873년 진사(進士)가 되었다.⁶ 그는 평소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 뜻을 두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말년에는 의학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으며 이 지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치료하였다.⁷ 이 때문에 1902년(광무光武 6)에는 혜민원(惠民院) 주사(主事)에 임용되기도 하였다.⁸ 그는 1907년(융희隆熙 1) 2월 2일에 67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으며, 해남군 서쪽 화원(河源) 수동촌(水洞村) 북쪽에 안장되었다.⁹ 조택승은 그간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던 상한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진일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탁월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졸헌의 의학은 아들 병후에게 이어졌다. 졸헌은 1남3녀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 셋째가 아들 병후이다.¹⁰ 병후의 자는 자명(子明), 호는 행치(行癡)로, 1869년(고종高宗 6) 5월 19일에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당(堂) 이름을 병성각(鉋城閣)으로 짓고, 회춘각(回春閣)이라는 약포(藥舖)를 직접 운영하면서¹¹ 아버지의 의술을 물려받아 이를 더욱 정미롭게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상한경험방요찰』이라는 책을 간행하기에 이른다. 슬하에 근환(瑾煥), 영환(瑩煥) 두 아들을 두었다.¹² 1944년 11월 11일 영면(永眠)하였다.¹³

두 부자는 유학자로서 각자의 시문집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조택승은 『졸헌집(拙軒集)』을, 조병후는 『행치집(行癡集)』이 그것이다.



pic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졸헌집(拙軒集)』과 『행치집(行癡集)』 합본서¹⁴

2.1.2. 『상한경험방요찰』의 간행 내력

『상한경험방요찰』은 조택승이 세상을 떠나고 십 수 년이 흐른 뒤인 1921년 즈음에 아들 병후에 의해 정리되었다. 간기(刊記)에 의하면 1933년 간행되었고¹⁵ 발문(跋文)의 연대도 “白馬年”(庚午, 1930)으로 되어 있으나, 서문(序文)의 연대는 이보다 빠른 “辛酉年”(1921)으로 되어 있다.

서문과 발문에는 조택승, 조병후 2대에 걸친 의학 전술 과정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정여승(鄭汝丞)은 서문에서 “졸헌 조택승 선생은 여러 의가들의 서적을 섭렵하여 깊고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상한에 더욱 뛰어났다. 그의 아들 병후는 아버지의 심법(心法)을 물려받아 정미롭게 연구하여 깨우치고 활발히 변통하여 응용하였다.”¹⁶라고 하였으며, 윤충하(尹忠夏) 또한 발문에서 “내가 듣건대, 고 조졸헌 선생은 일성산 아래 은거하며 일찍이 효행으로 이름을 날린 진사 석남공의 뜻을 받들면서 성현의 책을 읽고 의학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그 오묘함을 꿰뚫으니 세상에서 대방가(大方家)라고 칭하였다. 그는 상한 치료에 더욱 정밀하여 앞 사람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바가 많았으며 그것을 시험하면 응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그의 아들 병후는 아버지가 말로 주고 마음으로 전한 것을 습득하여 이를 엮어서 차례를 짓고 풀어서 뜻이 통하게 하였다.”¹⁷라고 하였다.

2.1.3. 『상한경험방요찰』의 구성과 내용

2.1.3.1. 『상한경험방요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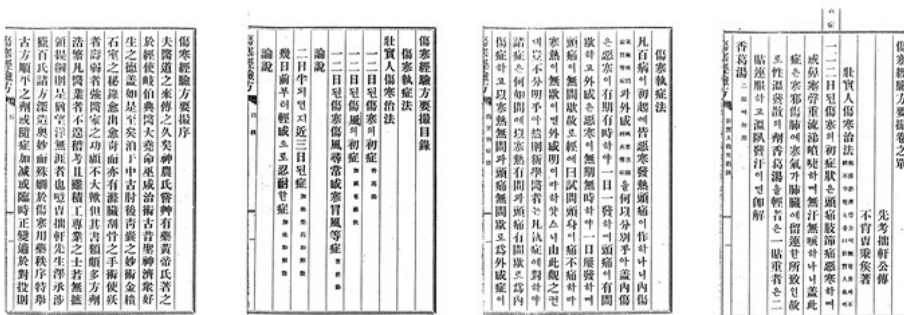
『상한경험방요찰』은 상한에 대한 치료 방법을 담고 있는 서적이다. 상한은 본래 ‘寒’이라는 사기(邪氣)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통의학 이론으로, 한사(寒邪)가 인체에 침입하여 어디에 머물고, 어떤 증상을 발현시키며, 어떻게 이것을 치료하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경험방요찰』은 여느 상한 서적과는 달리 건장한 사람(壯實人), 늙고 허약한 사람(老虛人), 임신부(孕婦), 부인(經候婦人), 소

아(小兒) 등 남녀노소(男女老少)라는 개체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기’가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둔 구성이다. 그 목차를 살펴보면 과 같다. (『상한경험방요찰』의 내부 모습은 와 같다.)

fig1. 『상한경험방요찰』 목차(目次) 구성

내용	목차
총론	傷寒執症法
건강한 사람	壯實人傷寒治法, 兩感傷寒治法
임신부, 부인	孕婦傷寒治法, 經候婦人傷寒治法
노인	老人男女傷寒治法
소아	小兒傷寒治法
기타	類傷寒治法, 暑月感冒治法, 瘟疫治法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내용에 따라 목차를 구분하였음.



pic2. 좌상: 서문(序文)/ 우상: 목록(目錄)/ 좌하: 상한집증법(傷寒執症法)/ 우하: 본문 시작부

2.1.3.2. 『상한경험방요찰』의 내용

책 첫머리에 있는 「상한집증법(傷寒執症法)」은 총론(總論)에 해당하는 논설로서 어떤 병을 상한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저자는 “증을 잡을 때에 다른 증상이 어떻든 간에 오한발열(惡寒發熱)과 두통(頭痛)이 쉬는 때가 있는 것을 내상(內傷)으로 보고, 오한발열과 두통이 쉬 없는 것을 외감(外感)으로 보면”¹⁸ 된다고 하였다. 저자는 내상과 외감의 구분을 진단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그 차이를 ‘오한발열’과 ‘두통’ 두 가지 증상에서 찾았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쉬 없이 이어지면 상한이고, 때에 따라 증감한다면 내상이라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이 논설은 내상 외감의 일반적인 감별법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으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준이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 이래로 내상과 상한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내상을 주창한 이동원(李東垣) 이하 역수학파(易水學派) 의학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체계화된 것이다. 내상과 외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면에는 내상을 끼지 않은 순수한 상한을 따로 변별해야 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 『상한론』에서 중경(仲景)이 사용한 처방들의 용처는 바로 순수한 상한의 경우이며, 내상을 끼고 있는 대다수의 상한에서는 다른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졸헌이 책 처음에 이러한 구분을 두고 있는 것은 외감 치료에 내상을 염두해 두겠다는 의도를 싣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2.1.3.2.1. 장실인상한치법(壯實人傷寒治法)

구체적인 치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실인(壯實人), 부인(婦人), 노인(老人), 소아(小兒)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다. 우선 건실한 사람의 상한을 논한 「장실인상한치법(壯實人傷寒治法)」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유병일수(有病日數)에 따른 처방 운용을 제시하였고(참조)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증상에 맞는 적방을 써 놓았다.(참조) 이러한 구성은 그 편리성 때문에 주광(朱肱)의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 이후 『동의보감』 등 많은 의서들에서 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졸헌은 이전 의서와는 달리 장중경의 이론을 취사선택하여 대담하게 사용하였다. 그는 『상한론』의 핵심 주제인 육경(六經)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유병일수에 따른 증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처방을 변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졸헌이 『동의보**

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¹⁹, 이는 『동의보감』에서 육경의 형증(形證)을 전반부에 나누어 설명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또 그는 장중경이 상한(傷寒)에 마황탕(麻黃湯), 상풍(傷風)에 계지탕(桂枝湯)을 썼던 것을 상한(傷寒)에는 향갈탕(香葛湯), 상풍(傷風)에는 가감삼소음(加減蔘蘇飲)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형시켰다. 다른 처방들의 발산력이 모두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⁰ 후반부 증상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증상 자체는 장중경이 언급해 놓은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치료 처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졸헌이 장중경의 이론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것은 임상효과를 기준으로 의학지식을 넓혀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처방마다 사용량을 제시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방 그대로 사용한 처방보다 스스로 가감하여 만든 ‘가감방’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또 처방 중간 중간 놓여 있는 ‘논설(論說)’의 견해들은 임상에서 얻은 지견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점들은 그가 판에 박힌 이론가가 아니라 노련한 임상가였음을 보여준다. 이 편 말미에서 차후조리(瘥後調理)를 제시한 것²¹도 질병의 빠른 회복과 재발방지를 추구했던 임상가의 견해가 드러난 부분이다.

유병일수	처방	증상 및 변증
1일, 2일	香葛湯	傷寒初症
	加減蔘蘇飲	傷風初症
	薑蔥湯	傷寒傷風尋常症
2.5일-3일	加味柴葛和解散	
3일, 4일	加減清熱和解散	寒變爲熱症
4일, 5일	加味柴茹湯	無惡寒但發熱症
5일, 6일	六一順氣湯	熱氣太甚症
5일, 6일, 7일	大柴胡湯, 大承氣湯	大熱大煩症

fig2. 상한 유병일수에 따라 졸헌이 제시한 처방

증상	처방	증상	처방
雜症舌胎症	黃連解毒湯	勞復再痛症	益氣養神湯
譫語撮空症	陶氏升陽散火湯	食復再痛症	小柴胡六君子湯
結胃症	柴陷湯, 小陷胃湯	陰陽易症	燒裊散, 爪甲散, 竹皮逍遙散
支結症	柴梗半夏湯	喘促症	加味生脉散, 五味子湯
陽症自利症	加減柴苓湯	瘥後昏沉症	陶氏導赤各半湯
陰症自利症	理中湯	瘥後熱不退虛煩症	辰砂五苓散
吐蛔症	安蛔理中湯, 小柴胡湯	瘥後虛煩不得眠症	酸棗仁湯
壞症	參胡芍藥湯, 獨參湯	瘥後調理	生脉補益湯

fig3. 상한 증상에 따라 졸헌이 제시한 처방

2.1.3.2.2. 양감상한치법(兩感傷寒治法)

「장실인상한치법」에 이어 나오는 『양감상한치법(兩感傷寒治法)』은 졸헌의 의학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다. 양감상한은 『내경』에서 제시한 상한의 병발증 가운데 하나로 음(陰)과 양(陽)에서 동시에 발병하는 것, 즉 태양(太陽, 巨陽)과 소음(少陰), 양명(陽明)과 태음(太陰), 소양(少陽)과厥陰(厥陰)이 동시에 병드는 상황을 가리킨다. 내경에서는 한사(寒邪)에 양감(兩感)되어 상한이 발병하고, 이로 인해 열병(熱病)이 촉발되면 예후가 좋지 않고 6-7일 이내에 죽는다고 본 이래로 상한의 대표적인 ‘위태로운 증상(危證)’으로 여겨져 왔다.

장중경이 『상한론』에서 ‘兩感’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내경』의 언급 이후 후대 의가들은 한사(寒邪)에 ‘兩感’되는 상태를 상한의 한 범주로 보았으며, 예후가 불량하여 살릴 수 없다는 『내경』의 설명에 따라 이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졸헌은 양감상한을 성생활 뒤에 외감의 풍한(風寒)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방사(房事)나 몽설(夢泄) 이후에 밖으로부터 풍한(風寒)에 감모(感冒)된 것을 ‘兩感’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병이 사람들이 살면서 십중팔구 걸리는 증상이다. 옛 의서에 양감은 반드시 죽는 증상이라고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통 의사들은 반드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니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²²라고 하였다.

이는 양감상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양감상한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며 치료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가 양감상한을 대목(大目)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임상에서 호발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양감사안(兩感傷寒)에 대한 졸헌의 견해는 상한 이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졸헌이 양감상한을 자세하게 논한 것은 이것이 장중경의 치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 즉 내상을 배제시킨 상한의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졸헌은 양감상한의 치료를 위해 병기(病機)를 나누고 이에 따라 도씨보중익기탕(陶氏補中益氣湯), 가감보중익기탕(加減補中益氣湯), 가미신기탕(加味腎氣湯), 강방쌍화탕(羌防雙和湯), 가미팔선장수탕(加味八仙長壽湯), 생맥대보탕(生脉大補湯) 등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처방들은 모두 내상을 전제한 처방들이다. 그는 양감상한을 외감에 내상을 낀 증상〔外感挾內傷證〕의 대표적인 임상 문제라고 이해한 셈이다. “평소 허약한 사람은 외감의 증상이 적고 내상의 증상이 많으니 1-2일 사이에 보중익기탕에 승마(升麻)를 거하고 천궁(川芎) 강활(羌活) 방풍(防風)을 각각 5푼 더하여 2첩으로 하여(加減補中益氣湯) 연달아 복용하고 조금 땀을 내면 낫는다.”²³ 라는 설명은 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동의보감』에는 이미 양감상한에 대한 역대 의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²⁴ 따라서 양감상한에 대한 졸헌의 이해는 오인(誤認)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양감상한이라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면서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2.1.3.2.3. 잉부상한치법(孕婦傷寒治法) 및 경후부인상한치법(經候婦人傷寒治法)

졸헌은 남녀의 상한 치료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비록 “부녀의 상한은 약을 쓰는 방법에서 남자와 다른 차이가 없지만, 약을 사용할 때에 사물탕(四物湯)을 합방하는 것이 다르다.”²⁵ 라고 가볍게 설명하였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부녀의 상한을 남자의 상한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졸헌은 남녀의 결정적인 차이를 임신과 월경으로 보았다. 임신한 부인에게는 안태(安胎)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월경이 있는 여인에게는 기혈허(氣血虛)를 전제하고 치료에 임하였다. 그는 「임부상한치법(孕婦傷寒治法)」을 두어 임신부의 상한에 대해 따로 논하면서 “임신부에게 약을 쓸 때에는 상한이나 잡병이나 간에 안태(安胎)를 위주로 해야 한다.”²⁶라고 하였다.

그는 실제 처방에서 임신한 부녀의 상한에 장실인(壯實人)과 유사한 처방을 사용하면서도 전경(傳經)하여 이열증(裏熱證)으로 변하였을 경우에는 한약(汗藥), 토약(吐藥), 하약(下藥)을 배제하고 화해청열안태(和解清熱安胎)를 목적으로 치료하였다.

27 또 말미에 52종의 임신금기약(妊娠禁忌藥)을 나열하여 태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였다.

졸헌은 일반 부인(女人)의 경우에도 월경을 끼고 상한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혈허(氣血虛)를 염두해 두고 약을 사용하였다. 그는 「경허부인상한치법(經候婦人傷寒治法)」에서 이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가 처방으로 제시한 가미향진팔물탕(加味香陳八物湯)과 사삼향진팔물탕(沙蔘香陳八物湯)은 둘 다 기(氣)와 혈(血) 모두를 보하는 팔물탕(八物湯)을 기본하고 있다. 이 처방들은 모두 팔물탕에 행기(行氣)를 목적으로 변향부자(便香附子)와 진피(陳皮)를 가하고, 여기에 다시 발산지제(發散之劑)를 더한 처방들이다.

유병일수	처방	비고
1일, 2일	芎蘇散	-
2.5일-3일	加味和解散(去半夏)	壯實人 治法과 같음
3일, 4일	加減清熱和解散	壯實人 治法과 같음
4일, 5일	加味柴茹湯	壯實人 治法과 같음
5일, 6일	涼血黃龍湯	汗吐下法 不可

fig4. 임부상한(孕婦傷寒) 유병일수에 따라 졸헌이 제시한 처방

2.1.3.2.4. 노인남녀상한치법(老人男女傷寒治法) 및 소아상한치법(小兒傷寒治法)

졸헌은 남녀뿐만 아니라 ‘老少’의 문제도 중시하여 노인과 소아의 상한도 따로 설명하였다. 노인의 경우 「노인남녀상한치법(老人男女傷寒治法)」에서 허증(虛症)의 다소(多少)에 따라 치료 방법을 구분하였다. 매우 허약한 경우(極老虛人症)에는 가미보중익기탕(加味補中益氣湯)²⁸을 사용하여 치료하였고 덜 허약한 경우(稍老虛人症)에는 팔해산(八解散)²⁹을 사용하여 다스렸다.

「소아상한치법(小兒傷寒治法)」에서는 소아의 연령별 특징에 따라 치법을 구분하였다. 1-6세까지의 소아는 변증(變症)이 있다고 보고 성성산(惺惺散)에 가미(加味)하여 치료하였고, 6-10세 혹은 그 이상의 소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소음(蔞蘇飲)에 가미(加味)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한편, 1-8세까지의 소아의 경우에는 상한의 발열로 인해 경풍(驚風)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경풍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처방을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2.1.3.2.5. 유상한치법(類傷寒治法), 서월감모치법(暑月感冒治法), 온역치법(瘟疫治法)

졸헌은 상한과 구분해서 치료해야 할 유상한(類傷寒), 서병(暑病), 온역(瘟疫)에 대해서도 각각 「유상한치법(類傷寒治法)」, 「서월감모치법(暑月感冒治法)」, 「온역치법(瘟疫治法)」에서 다루었다. 유상한의 경우 대표적으로 “傷食成積”을 제시하였는데, 초기 증상이 상한과 유사하지만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을 해대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하고³⁰ 여기에 도씨평위산(陶氏平胃散)을 제시하였다.

서월감모와 온역 역시 상한과 구분해서 치료해야 할 질환이다. 졸헌은 병자가 건장한 사람(壯實人)인가 노쇠한 사람(老虛人)인가에 따라, 또 병이 새로 걸렸는가(初症) 오래 되었는가(稍久症)에 따라 치료 처방을 제시하였다. 서월감모에 장실인은 서문향갈탕(暑門香葛湯), 이향산(二香散)으로 치료하고, 노인(老人)이나 허인(虛

人)의 경우에는 청서익기탕(淸暑益氣湯)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³¹ 온역의 경우에도 장실인은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에 가미하여 쓰고, 노인과 허인은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제시하였다.³²

구 분		壯實人	老虛人
暑月感冒	初症	暑門香葛湯	淸暑益氣湯
瘟疫	稍久症	二香散	-
	初症	加味人蔘敗毒散	升麻葛根湯

fig5. 졸헌이 제시한 서월감모(暑月感冒)와 온역(瘟疫)의 치료 처방

2.1.4. 주요 학술 사상

『상한경험방요찰』에는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궤음의 육경 체계 대신 남녀노소를 지배적인 접근 단서로 상정하였다.(참조) 상한을 다루면서 육경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파격적이지만 성별과 연령을 치료의 큰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다.

졸헌은 구체적인 변증에 있어서 허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정기(正氣)의 허실이나 질병(疾病)의 신구(新舊)를 기준으로 변증하였다. 정기의 강약(強弱)에 따라 치료 처방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 발생한 질병인가 조금 묵은 질병인가에 따라 한열(寒熱)의 성질이 바뀐다고 보아 치료 처방을 달리 하였다. 이는 상한 뿐만 아니라 책 말미에서 다룬 서월감모와 온역까지 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논리이다. 그가 남녀노소를 변증의 큰 갈래로 삼은 이면에도 허실의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상한론』에 담긴 중경의 견해와 큰 차이가 있다. 후대 정리된 팔강(八綱) 체계를 빌려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분명해진다. 중경은 『상한론』에서 육경을 통해 음양(陰陽), 표리(表裏), 한열(寒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졸헌은 육

경을 배제함으로써 음양과 표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고, 한열과 허실 - 특히 사람에 따른 허실의 문제 - 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상한을 내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였다는 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허실의 문제는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상한보다 내상의 문제에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맨 처음에 위치한 「상한집증법」에서 “執症上에 萬無一失”이라고 내상과 외감의 구별을 강조한 이래로, 양감상한을 내상을 동반한 외감으로 보고 이를 깊이 있게 다루는가 하면, 조리법(調理藥)으로 생맥산과 보중익기탕을 합방한 생맥보익탕을 제시하여³³ 내상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치료를 마무리 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또 저자는 상한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내상 치료에 성방(聖方)이라고 알려진 보중익기탕을 높이 평가하였다.³⁴ 이러한 점들은 잡병의 하위 개념으로 상한과 내상을 포괄한 『동의보감』의 논리체계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졸헌은 처방을 매우 정교하게 운용하였다. 우선 그는 약의 최대 용량을 제한하고 적정량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二貼에勿用”, “一貼或加一貼外에勿用” 등 대부분의 처방명 옆에 소자주(小字註)를 통해 투여량을 규정해 놓았다. 대부분 2-3첩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1-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졸헌이 1-2일 마다 증상 변화를 살펴 처방을 사용한 것인데, 이는 그가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임상에 임했음을 방증한다.

졸헌의 처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삼(沙蔘)의 사용이다.³⁵ 그는 많은 처방에서 인삼 대신 사삼을 사용하였다. 이는 인삼(人蔘)이 폐화(肺火)를 요동시킨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³⁶ 그는 보다 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삼을, 보다 열증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사삼을 사용하였다. 12일된 상풍에 사용하는 가감삼소음에서 인삼을 사삼으로 바꾸어 사용하는가 하면,³⁷ 경후부인의 상한 초증에 사용하는 시호사물탕의 경우에도 월경이 막 끝났거나 이미 시작한 경우에는 초증이라 하더라도 허증이 조금 있으니 인삼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사삼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하였다.³⁸ 이와 비근하게 노인 상한으로 사열(邪熱)이 치성할 때에 잠깐 사용

하는 가감화해산에서 매우 허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인삼을 쓰고 조금 덜 허약한 노인에게는 사삼으로 바꾸어 쓰라고 하기도 ³⁹ 하였다. 책 전반에 있어서는 소시호탕 및 그 변방을 운용할 때에 인삼을 대부분 사삼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2.1.5. 『상한경험방요찰』의 학술적 의의

『상한경험방요찰』의 학술적 가치는 크게 상한학술사(傷寒學術史)적 가치와 한국의 학사(韓國醫學史)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 책은 상한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상한의 전범인 장중경 처방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책 내에 중경방(仲景方)이라고 할 만한 것은 소시호탕, 대승기탕, 이중탕 등 몇몇 처방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인삼을 사삼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 변형시킨 경우가 많다.

태양병의 경우, 중경과 같이 졸현 역시 상한과 상풍으로 증상을 구분하였지만 마황탕과 계지탕이 아닌 향갈탕과 가감삼소음을 사용하였다. 이는 허준이 「동의보감 한문(寒門)」 태양병형증용약(太陽病形證用藥)에서 마황계지탕(麻黃桂枝湯)과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마황탕·계지탕 앞에 둔 것보다 더욱 파격적이다.

졸현은 자신의 보았던 상한을 옛법에 의지하지 않고 후세(後世)의 처방들을 토대로 가감하여 치료하였다. 행치는 이에 대해 “옛 책에 상한 초증에 사용하는 처방이 많지만 앞에 제시한 향갈탕, 삼소음, 강충탕보다 발산시키는 힘이 지나치다. 그러므로 졸현공께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 ⁴⁰ 라고 하였다. 이는 흡사 장원소(張元素)가 “옛날과 지금의 운기(運氣)가 달라 옛 처방으로 지금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⁴¹ 라고 하며 금원사대가의 시대를 연 것을 연상 시킨다.

장중경의 처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방법의 차이와 아울러 병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달라졌으며, 약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졸현은 상한을 다루면서 내상의 문제를 잊지 않았고, 표리 한열 음양의 문제보다 허실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 중경방의 인삼을 사삼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 처방의 변형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졸현의 시도는 상한학술사에서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상한경험방요촬』은 조선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된 상한 연구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의학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크다. 조선에서는 『상한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의가나 『상한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의서가 거의 없으며, 『상한론』에 관한 전문적인 저작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황한의학(皇漢醫學) 지식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서적은 상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황한의학의 영향 이전에 조선 유의(儒醫)에 의해 저술되었다.

졸현의 생각은 상당부분 『동의보감』에서 유래하고 있다. 두 책은 병자를 중심에 두고 치료를 안배하거나 내상을 염두해 두고 치법을 펼치는 등 논리적인 면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일반화하기에는 이르지만, 조선 후기 의가들이 『상한론』이나 『상한론』 관련 주석서가 아니라 『동의보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한을 이해하였다고 추측된다. 이를 인정한다면 졸현의 견해는 조선 후기 상한학의 일반적인 학풍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상한론』의 학술 경향은 장중경의 『상한론』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왔다. 통상 학술사적으로 텍스트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착간중정파(錯簡重訂派), 유호구론파(惟護舊論派), 변증논치파(辨證論治派)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⁴² 하지만 실제 역사상 이루어진 상한학의 범주는 이보다 더욱 다양하다. 단적으로 이런 구분은 송대(宋代)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 이후 축적된 상한 처방들과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후대 의서들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의보감』의 「한(寒)」의 경우도 기존의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분명히 장중경의 논리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개념들 역시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⁴³ 치료 처방들 역시 중경방 이외의 것들을 대량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간 한국 전통의학에서 상한에 대한 내용이 의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특별히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조택승과 조병후 부자가 저술한 『상한경험방요찰』을 보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분명 상한을 전면적으로 다룬 전문의서이지만 육경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의 구분을 치료의 큰 기준으로 삼고, 허실을 변증의 기준으로 보았다. 또 이들 부자는 처방에 있어서도 장중경의 처방이 아니라 후대 성립된 처방을 사용하였고 이마저도 자신의 임상경험에 따라 변형하였다.

『상한경험방요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답과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출현과 행치는 우리에게 한국식 상한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보여주고 있다. 『동의보감』이 한국 상한학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의 상한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한편 그들로 인해 우리는 이들의 학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상한경험방요찰』에 대한 평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상한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장중경의 처방이 아닌 후대에 성립된 처방으로 치료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통상의 학술사적 구분만으로는 비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중경방 이외의 상한 처방을 사용했던 수많은 의가들과 수많은 서적들에 대한 재평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본서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상한학의 지형이 새로 그려지기를 희망해 본다.

작성자 오준호

< 참고문헌 >

金南一,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2).

이상원, 『東醫寶鑑의 傷寒에 대한 認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曹秉侯, 『行癡集』, 崔承學方, 1929.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鉞城閣, 1933.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編纂委員會,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 瑞進出版社, 1992.

陳大舜, 曾勇, 黃政德 著, 맹웅재 외 역,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許浚 편저,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李梴 편저, 진주표 역해. 『醫學入門』. 법인문화사. 2009.

- 본 해제는 다음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오준호, 박상영, 김현구, 권오민.
「朝鮮後期 傷寒 研究의 一面: 朝鮮後期 傷寒 研究書『傷寒經驗方要撮』의 구성과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 pp.25-34.

1. : 金南一 :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韓國醫史學會誌』. 2004;17(2) ↩

2. **일본식 상한학(傷寒學)** : 본고에서는 ‘傷寒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 혹은 학술연구성과’라는 의미를 기존 용어에서 찾을 수 없어 부득이 ‘傷寒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이하 『傷寒論』은 後漢의 張仲景이 저술한 『傷寒論』 혹은 『傷寒雜病論』을 가리키며, 傷寒은 寒邪를 받아 발상하는 질병을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

3. : 曹澤承 :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 “公諱澤承, 貫昌寧, 字太安, 號拙軒.” ↩

4.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 “憲宗辛丑, 九月十三日生, ……” ↩

5. : 曹秉侯. 『行癡集』. 崔承學方. 1929. 「行癡先生系要」 “祖諱錫昌, 號石南, 中進士, 有特異孝行, 爲神明所感, 哲宗命族.” ↩

6.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 “嘗於癸酉式(試)爲親擢進士, 第鄉稱誠孝之至矣盡矣.” ↩

7.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 “素以濟衆急人爲己任, 晚以醫書自娛, 精究邃解, 試之無不應, 亦不以自命.” ↩

8.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上皇壬寅拜惠民院主事, 知舊貢賀子孫獻壽.” [↩](#)
9.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當宁丁未二月初二日卒, 享年六十七. 葬于海南郡西花源山水洞村北妣墓下, 壬坐之.” [↩](#)
10.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公之雁行有四公, 其三也子一秉侯, 孫二瑾煥瑩煥.” [↩](#)
11. : 曹秉侯. 『行癡集』. 崔承學方. 1929. 「行癡先生系要」“現今先生氏曹, 啣秉侯, 貫昌寧, 字子明, 號行癡. 又樾樓主人, 堂名鉞城閣, 藥舖曰回春閣.” [↩](#)
12. : 曹澤承. 『拙軒集』. 鉞城閣. 1930. 「拙軒先生墓碣文」“公之雁行有四公, 其三也子一秉侯, 孫二瑾煥瑩煥.” [↩](#)
13. :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編纂委員會.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 [↩](#)
14.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 우촌古3648-71-10 [↩](#)
15. : 이 책의 간기에는 發行所를 鉞城閣으로, 發賣所를 回春閣藥方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全南 海南郡 門內面 古坪里 32番地에서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
16.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鉞城閣. 1933. 「序」“..... 曹拙軒先生澤承, 涉獵百氏諸方, 深造奧妙而殊嫻於傷寒, 其胤君秉侯, 能受心法, 且精研而慧悟, 活變而應用,” [↩](#)
17.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鉞城閣. 1933. 「跋」“余聞, 故曹拙軒先生, 隱居于日星山下, 早服孝行進士石南公之義方, 好讀聖賢書兼究醫學, 徹其妙奧, 世稱大方家, 而尤精於傷寒治法, 多有發前人所未發者, 試之無不應, 其胤君秉侯, 得其口授心傳, 編以次之, 翻以譯之者,” [↩](#)
18.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鉞城閣. 1933. 「傷寒執症法」“然則新學醫者是凡執症에對하야諸症은何如間에以寒熱有間과頭痛有間歇로爲內

傷症하고以寒熱無間과頭痛無間歇로爲外感症이면執症上에萬無一失이니
라” ←

19. : 졸헌이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 『傷寒經驗方要撮』
「兩感傷寒治法」에는 雙和湯에 “虛勞門見”, 腎氣湯에 “五臟門見”이라는 주
석이 보인다. 이 두 처방은 본서에 등장하지 않으며, 주석이 가리키고 있는 것
은 『東醫寶鑑』의 편명이다. 또 졸헌이 사용한 구체적인 처방 가운데 『東醫寶
鑑』에서 유래한 것도 보인다. 「孕婦傷寒治法」에서 졸헌이 사용한 涼血黃龍
湯은 黃龍湯과 涼血地黃湯을 합방한 처방이다. 그런데 이 두 처방을 합하여
사용하면 줄다는 내용은 『東醫寶鑑』에 나와 있는 독자적인 것이다. 비록 『東
醫寶鑑』이 이 조문의 근거 문헌을 『醫學入門』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醫學入門』에는 이 설명 없이 황룡탕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졸헌은 『東醫
寶鑑』에서 단초를 얻어 이 涼血黃龍湯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許浚 편저,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790. “황
룡탕. 임신부의 상한으로 발열이 있는 것과 산후발열이나 열이 혈실로 들어간
증상을 치료한다. 소시호탕에서 반하를 뺀 것이다. 이것을 양혈지황탕과 합하
여 쓰면 더욱 좋다. 『입문』(黃龍湯.治孕婦傷寒發熱, 及產後發熱, 熱入血室等
證, 卽小柴胡湯, 去半夏也. 與四味涼血地黃湯合用尤好. 『入門』 ←

20.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壯實人傷寒治
法」 “古書에傷寒初症의用方이雖多하나右香葛湯、蔘蘇飲、薑葱湯等劑보다
는發散力이過한故로拙軒公게옵서全然不取하심.” ←

21. : 이 편 말미에서 차후조리(瘥後調理)를 제시한 것 : 그는 傷寒 瘥後에 補中
益氣湯과 生脈散을 합방한 生脈益氣湯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壯實人傷寒治法」 “瘥後에調理用
藥法은表症瘥後나半表半裏症瘥後나裏症瘥後나凡於瘥後에는勿論生脉補益
湯을虛實斟酌하야多小服用함이至可至可引라盖補中益氣湯은凡病後나勞役
傷에脾胃을調理하고元氣를增進케함이羣方の元帥요補劑의神聖이니此此에

更無勝此方으로思惟할지어다.” ↩

22.: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兩感傷寒治法」“犯房이나夢泄이나後에外感風寒者曰兩感이라하나니蓋此病이人生上에十居八九의症이오古書에曰兩感은必死之症이라하나니可不懼哉아庸醫는治療不能하는病이니愼之愼之할지라.” ↩

23.: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兩感傷寒治法」“素虛의人은外感症은小하고內傷症은多하나니一二日間에補中益氣湯內傷門見에去升麻하고加川芎羌活防風各五分하야二貼을連服하고微發汗이면卽解.”

↩

24.: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

25.: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經候婦人傷寒治法」“婦人傷寒의用藥은與男無異로되凡用藥에但合四物湯이爲異.” ↩

26.: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孕婦傷寒治法」“大凡孕婦의用藥은傷寒이나雜病이나間에安胎로爲主할뿐만아니라” ↩

27.: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孕婦傷寒治法」“五六七八日이되도록已上과如히次第로用藥하야도小無瘥効하고大熱大煩大滿大渴不大便譫語發狂舌胎의等症이有하면孕婦는汗藥吐藥下藥의等劑를不敢用之하고但히和解清熱安胎로爲主하나니凉血黃龍湯二三貼을連用則神効하나니라.” ↩

28. 가미보중익기탕(加味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에 羌活, 防風, 川芎을 가한 처방이다. ↩

29.: 팔해산(八解散): 不換金正氣散에 四君子湯을 합방하고 白朮과 厚朴을 빼고 川芎을 거한 처방이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는 두 처방을 합방한 뒤에 蒼朮을 빼고 四時傷寒에 사용하였다. ↩

30.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類傷寒治法」 “凡傷食成積에亦能發熱或惡寒頭痛하야恰似傷寒初症이로되但心腹이飽悶하며嘔噎嘔逆이爲異니詳히問症하야食傷症이確的한然後에陶氏平胃散을連用하면卽解하니라.” ←

31.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暑月感冒治法」 ←

32.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瘟疫治法」 ←

33.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壯實人傷寒治法」 “瘥後에調理用藥法은表症瘥後나半表半裏症瘥後나裏症瘥後나凡於瘥後에는勿論生脉補益湯을虛實斟酌하야多小服用함이至可至可引라.” ←

34. : 보증익기탕이 병을 앓은 뒤나 과도한 육체활동으로 생긴 虛勞에 脾胃를 조리하고 元氣를 증진시키는 처방으로 모든 처방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傷寒經驗方要撮』 「壯實人傷寒治法」 “蓋補中益氣湯은凡病後나勞役傷에脾胃을調理하고元氣를增進케함이羣方의元帥요補劑의神聖이니此此에更無勝此方으로思惟할지어다.” ←

35. : 沙蔘은 일반적으로 잔대라고 알려져 있으나, 『東醫寶鑑』에는 ‘더덕’이라고 언해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

36. : 許浚 著,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 ←

37.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壯實人傷寒治法」 “一二日된傷風의初症狀도頭痛肢節痛惡寒하며或鼻塞聲重流涕噴嚏하며有汗有咳하나니蓋此症은風邪傷肺에風氣가肺臟에留連한所致인故로性溫發散의劑蔘蘇飲에人蔘을去하고沙蔘을代入하며杏仁桑白皮各七分五厘或一錢을加하야輕者는一貼重者는二貼連服하고溫臥發汗이면卽解.” ←

38.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經候婦人傷寒治法」 柴胡四物湯 “但經水適斷者와經水已來者에對하야는虛症이小有할것이니本

方과如히人蔘으로入用可也오其外에는舉皆沙蔘으로代入可也라.” ↩

39.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老人男女傷寒治法」 “加減和解散 “極老虛人은人蔘으로入하고稍老虛人은沙蔘으로代入.” ↩

40. : 曹澤承, 曹秉侯. 『傷寒經驗方要撮』. 鉅城閣. 1933. 「壯實人傷寒治法」 “古書에傷寒初症의用方이雖多하나右香葛湯、蔘蘇飲、薑葱湯等劑보다는發散力이過한故로拙軒公게옵서全然不取하심.” ↩

41. : 李梴 편저, 진주표 역해. 『醫學入門』. 법인문화사. 2009. pp.165-6. 「內集卷之首 歷代醫學姓氏」 “張元素 治病不用古方. 其說曰, 運氣不齊, 古今異軌, 古方新病, 不相能也.” ↩

42. : 陳大舜, 曾勇, 黃政德 저, 맹웅재 외 역.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pp.22-23. ↩

43. : 이상원. 『東醫寶鑑의 傷寒에 대한 認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pp.1-44. ↩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상한경험방요찰 傷寒經驗方要撮

원저자 : 조병후

국역 : 이정현

해제 : 오준호

편집 : 문진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초판) 2014년 12월 10일

(2판) 2016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박상영이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오준호이며, 정보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